

# 포크 음악 만들기

## - 나의 이야기를 담은 곡 만들기 -

제 출 자: 신주현

지도교사: 김수자

### 초록

본 논문에서는 시대별 포크의 흐름과 한국 포크음악의 성립과정, 그리고 한국의 포크의 특징과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위 논문들을 통해 포크에 대한 개념과 특성, 역사를 이해하고 공부하며 분석했다.

분석한 포크음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엄마', '가을', '성장', '그리움·이별'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다. 포크 음악 싱어 송 라이터들의 방법을 사용해 가사를 먼저 쓰고 멜로디를 붙이는 방식으로 직접 작곡 하였으며, 만든 곡을 공연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령층과 전문가 포크 음악 싱어 송 라이터 '김사월'님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음악이었는데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구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10대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각자의 삶과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의 작품이 포크 장르의 궁극적 목표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쉽게 듣고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 목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4. 용어 설명

#### II. 본론

1. 포크(Folk) 음악의 정의와 특성
  - 1) 트레이디셔널(Traditional) 포크
  - 2) 프로테스트(Protest) 포크
  - 3) 현재의 모던 포크와 대표적인 포크 아티스트들
2. 포크 음악 만들기
  - 1) '보고싶어' 가사와 곡 소개
  - 2) '마음 냄새' 가사와 곡 소개
  - 3) '낮선 세상' 가사와 곡 소개
  - 4) '타임캡슐' 가사와 곡 소개

#### III. 결론

1. 작품 평가
  - 1) 간디인 평가
  - 2) 전문가 평가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3. 논문을 마치며

<감사의 글>

<참고 문헌>

<부록>

1. 작품일지
2. 이형주님과의 인터뷰

# I. 서론

## 1. 논문의 동기

나는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 과거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 매일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겪은 이야기와 지금 내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나의 곡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작곡과 나의 삶을 연관 지어 보고 싶었다. 작곡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작곡이란 것을 해보았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 실력이 좋은 것도, 목소리가 예쁜 것도 아니지만 노래하는 것이 좋다. 인정 욕구가 강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주눅 들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나의 음악이었다. 음악과 작곡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조금 더 음악에 파고들어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매번 대중적인 노래들만 좋아하다 우연히 듣게 된 한 포크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나도 곡을 만들게 되면 포크 곡을 작곡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많은 장르들 중 포크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다. 단조롭게 진행되는 곡에 덩덤히 풀어내는 가사가 매력적이었다. 기타 선율 위 목소리 하나로 구성된 포크 음악들이 나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 2. 논문의 목적

노래는 힘이다. 무언가를 바꿀 수 있기도 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노래가 가진 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10대 중 한 사람인 나의 삶, 나의 상태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곡에 담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십대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자신의 삶과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있기를 기대한다.

## 3.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작품 논문이다. 시대별 포크의 흐름과 한국 포크 음악의 성립 과정, 그리고 한국의 포크의 특징과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위 논문들을 통해 포크에 대한 개념과 특성, 역사를 이해하고 공부한다. 한국의 음악사를 다룬 여러 서적들과, 포크의 거장이라 불리는 '밥 딜런'의 전기를 다룬 책을 통해 포크라는 장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고든다.

이 과정에서, 직접 포크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민중가요 싱어 송 라이터 이형주님께 장르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과, 삶과 음악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로맨틱시즘 포크 음악의 아티스트 '김사월'의 공연을 두 차례 다녀오면서 내가 발표할 공연과 노래에 많은 영감과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한 포크 음악의 특징을 토대로 직접 포크 음악을 만들고, 실제 공연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논문이다.

본문에서 다룬 포크 음악을 한국의 포크 음악으로 한정하고, 다양한 학위 논문들과 자료가 펼쳐고 있는 '포크'의 특성과 개념을 종합하여 포크의 정의를 내린다. 최종적으로는 내가 내린 포크의 정의에 따른 포크 음악을 만들어보기로 한다.

#### 4. 용어 설명

본 논문에서 쓰일 용어들을 정리해보겠다. 주로 쓰일 용어들은 음악 용어이며, 곡의 구성(노래의 형식, song form)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여기서 곡의 구성이란, 한 곡의 노래에 어떠한 구성과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글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수 있듯이 노래에서도 첫 시작, 하이라이트, 끝맺음이 있는데 이를 구분 지어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 Intro(인트로) → Introduction의 약자이다. 인트로는 노래에서 가사가 나오기 전까지의 처음 나오는 간주 부분 즉, 곡의 도입부에 해당 된다. 곡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Verse(벌스) → 벌스는 인트로의 뒤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곡에서 1절, 2절과 같은 절에 해당한다. 글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며, 멜로디가 같지만 가사가 다른 경우에는 Verse1, Verse2, Verse3 등으로 표기한다.
- Chorus(코러스) →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글에서 보면 곡의 본론 부분에 해당 된다.
- Bridge(브릿지) → 곡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브릿지 뒤에는 코러스 혹은 벌스로 이어진다.

---

1) 곡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까요? [101랩레이블], 네이버 블로그, 2018. 10. 14.  
([https://m.blog.naver.com/lab\\_vocal/221362262715](https://m.blog.naver.com/lab_vocal/221362262715))

• Interlude(인터루드) → 인터루드는 곡의 간주 부분이다. 보통은 1절과 2절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 Outro(아웃트로) → 앞에서 설명한 인트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아웃트로는 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글에서 본다면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 II. 본론

### 1. 포크(Folk) 음악의 정의와 특성

포크 음악에서 포크(Folk)의 사전적 의미는 ‘민속’, ‘전통’이다. 이 단어의 뜻으로만 생각한다면 포크음악은 민요 또는 민속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악을 ‘정통 포크’ 또는 ‘트래디셔널 포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룰 포크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포크가 아닌,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은 포크이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각 나라의 전통 악기들로 구성되어 민속적인 풍을 풍기는 민요는 ‘트래디셔널 포크’라고 부르며, 트래디셔널 포크와는 다른 현대의 포크를 ‘모던 포크’라 칭한다. 20세기 대중음악에서는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대의 민속음악에 해당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대중음악 장르를 가리켜 ‘모던포크’라 부른다.<sup>2)</sup>

포크라는 장르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다. 포크의 시작은 미국과 영국의 정통 포크에서부터였다. 미국이나 영국이 가지고 있던 정통 포크 음악들이 다양한 예술문화의 발달 속에서 특정한 장르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초기 포크음악은 노동자들의 삶과, 정치적인 저항 등의 메시지를 가지며 자리잡게 된다.<sup>3)</sup> 하지만 우리나라 포크의 시작은 미국과 서양과는 전혀 다른 흐름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 무렵부터 미국의 문화적인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주둔하는 미군들과 보급된 라디오로 서양의 음악을 접하게 된다.

50년대 이후의 젊은 층들과 여러 아티스트들은 이 음악들의 노래를 영어 그대로 부르거나 한국어로 개사하며 부르기 시작했고, 한대수, 김민기 등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포크곡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의 포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sup>4)</sup>

2) 강현(2015),『전복과 반전의 순간 1 (강현이 주목한 음악사의 역사적 장면들)』, 파주: 돌베개 113p.

3) 방종서(2009),『한국 포크 음악의 특징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p.

4) 방종서(2009),『한국 포크음악의 특징과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14p, 15p,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들이 살았던 1970대를 이해하게 되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유입된 ‘포크’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1970년 대 청년문화와 포크음악을 이끈 주체는 주로 20대의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해방 이후 출생자들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양의 문화와 양식을 수용하고 동경하며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0대에 4.19 혁명(1960년)과 6.3 항쟁(1964년)을 경험한 세대로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시에 경험한 최초의 세대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양식들은 청년문화와 포크음악을 이끌기에 충분했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sup>5)</sup>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는 공통된 포크의 특징적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가장 먼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보컬의 관습을 이야기 할 수가 있겠다. 쉬운 멜로디로, 누구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단순한 악기 편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주로 휴대가 쉽고, 비교적 저렴한데다가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는 ‘기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세 번째로, 선율과 리듬보다도 가사의 중요성과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크 음악은 주로 반복되는 코러스(후렴)와 단조로운 코드와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문학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르적 특성이다. 이를 통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문학적 수사가 중요하게 여겨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포크 음악’이라 칭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음악의 형식적인 측면으로 하위 장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록 등의 장르의 특성과는 달리 포크는 음악 형식의 측면이나 악기 편성, 연주상의 특성에 따라 곡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때문에 어떤 음악을 포크음악이라 부르고,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어쿠스틱 기타의 소박한 반주의 노래는 모두 포크송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많으며, 실제로 팝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래, 혹은 컨트리송, 심지어 록 형태의 노래조차 어쿠스틱 기타로만 반주하면 포크로 불리는 경향이 있었다.”<sup>6)</sup>고 한다.

앞서 인용한 글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모던 포크에 통기타가 사용되며, 통기타의 유무에 따라 곡의 장르가 결정될 만큼 포크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기타’라는 악기의 관습, 또는 낭만이라는 정서로 설명되기 전에 음악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며, 자아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악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sup>7)</sup> 한다. 때문에 포크 일렉트릭 기타로 악기가 바뀌었

5) 박기영(2003), 「이식 그리고 독립 : 한국 모던포크 음악의 성립 과정(1968년~1975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9p.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포크송],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영미, 2018년 5월 8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872](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872))

7) 박애경(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책세상, 82p.

다고 하더라도 포크의 관습은 바뀌지 않으며, 포크록(Folk Rock)이 포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포크 음악은 가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로 단조롭고 간단한 코드와 화성 진행을 이용하여 곡이 진행된다. 때문에 일반 팝 가요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르의 곡들에 비해 전하는 가사와 메시지가 뚜렷한 것이 포크만의 매력이다.

포크음악은 트래디셔널 포크에서 주로 벤조, 만돌린, 하모니카 등으로 연주되던 형태에서, 현대화된 악기인 어쿠스틱 기타, 전기 기타, 베이스, 드럼 등의 악기를 만나면서 모던포크 음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sup>8)</sup>

### (1) 트래디셔널(Traditional) 포크

옛 민요와 새롭게 창작되는 민요의 범주까지 포함하여 트래디셔널포크(Traditional Folk Music)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미국의 ‘스왈리 강’과 스코틀랜드의 ‘작별’이 대표적인 포크 음악이며, 우리나라의 경기 민요인 ‘도라지 타령’과 동부 민요<sup>9)</sup>인 ‘쾌지나 칭칭 나네’와 같은 곡이 한국의 민요, 트래디셔널 포크에 속한다. 각 나라의 전통악기들로 곡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라별로 음악의 특성과 역사가 각기 다르다.

이러한 민요들을 편곡하거나, 재창작하여 가공하는 음악도 트래디셔널 포크의 영역에 포함된다. 보통 흔히 ‘월드 뮤직’이라는 장르라고 불러 지는데, 현재도 트래디셔널 포크를 계승하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으며, 트래디셔널 포크와 클래식을 결합하여 곡에 민요풍의 분위기를 담아내는 등<sup>10)</sup>의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형식과 양식의 음악이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는 셈이다.

### (2) 프로테스트(Protest) 포크

프로테스트 포크는 글자의 뜻 그대로 ‘항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리티시즘(Criticism, 비판·비난)을 기반으로 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겠다. 쉽게 말해 ‘사회 저항적 음악’ 또는 ‘사회비판적 음악’이라고 불리며, 다르게는 민중가요라고 부르기도 한다.

8) 강민규(2013), 「한대수부터 악동뮤지션까지의 흐름으로 본 한국 포크음악 생명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 동부 민요: 태백산맥의 동쪽 지방 경상도·강원도·함경도의 민요를 총칭하는 말. 송방송(2012), 한겨레 음악대사전 674p~675p.

10) 조정치의 2집 앨범인 ‘유작’의 타이틀 곡 ‘겨울이 오면(Feat. 정준일)’이 대표적이다. 앨범 소개에서 “이는 한국 포크음악의 유형과는 차이점을 두며, 유약함과 우울함의 상징인 엘리엇 스미스(Elliot Smith)의 모던 포크 음악과 페어포트 컨벤션(Fairport Convention), 닉 드레이크(Nick Drake)로 대변되는 트래디셔널 포크 음악이 함께 공존하는 인상을 내비친다.”고 설명한다.

프로테스트 포크 역사의 초기인 1970년대에는 정치적 억압 등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음악 창작자들이 자신의 비판적 의견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부에서의 창작물 검열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중음악으로 표현되지도 못했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음악 창작자가 많지도 않았다. 그렇다 보니 대학가나 지식인들 층에서는 기존의 구전민요, 외국곡, 교회음악, 대중가요 등의 곡들 가운데 의미 있거나 비판적인 곡들이 민중가요로 차용되었다. 이처럼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맞는 곡들이 시위와 운동권에서 불려졌다.

1980년대부터는 자신의 신념을 가진 민중가요 창작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민주화가 진행되고, 민중가요 운동이 합법화 되면서부터 보다 자유롭고 넓은 범위에서 민중가요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공유했으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 되고 있지만, 꼭 포크라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음악적 양식과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랩, 힙합 등의 장르인데, 이러한 장르에 비해 프로테스트 포크가 다른 장르에 비해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대학의 노래패들, 자립음악생산조합, 노찾사, 꽃다지 등 아직까지도 이러한 정신과 정서는 계속 되고 있다. 프로테스트 포크 아티스트 이형주는 “최근의 민중가요가 과거보다는 서정적이고, 곡에서 다루는 서사가 더 다양해졌다.”<sup>11)</sup>고 말한다.

### (3) 현재의 모던 포크와 대표적인 아티스트

포크음악의 맥락을 잇고 있는 90년대 이후, 노래에 저항의 요소는 없어졌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무게감을 잃지 않는 메시지를 담고 비주류라는 문화 소외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한국포크의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많은 한국포크 뮤지션들이 있다.<sup>12)</sup> 김광석 등과 같은 뮤지션들에 의해 완벽한 대중의 가요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댄스음악, 아이돌과 상업적 음악의 상승세로 설 자리를 잃어갔다. 하지만 포크는 흥대 중심으로 생겨난 루시드폴, 김사월, 김해원 등의 포크 뮤지션들의 활발한 활동과 제이슨 므라즈와 같은 해외 포크 음악 뮤지션들의 국내 인지도 상승, 오디션 프로그램 속 포크 음악의 재조명 등을 통해 다시 인기 있는 장르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옥상달빛, 제이레빗, 10CM, 로이킴, 유승우, 김지수, 버스커 버스커, 악동뮤지션 등<sup>13)</sup>이 있다.

11) 이형주님과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 부록 참고.

12) 방종서(2009), 「한국 포크 음악의 특징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69p.

13) 강민규(2013), 「한대수부터 악동뮤지션까지의 흐름으로 본 한국 포크음악 생명력에 관한 연구」, 동의

내가 작곡한 노래 또한 저항정신이 가미되지 않은 로맨티시즘(Romanticism)<sup>14)</sup>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소개한 대표적인 아티스트들과 같은 포크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 2. 포크 음악 만들기

### 1) '보고싶어' 가사와 곡 소개

Verse 1	
떠올려 그날의 기억 모두	잡아줘 눈물 속에 잠겨
흘어져 추운 겨울날의 입김	보고 싶단 말조차 못하잖아
딱딱한 침대에 누운 채	Chorus
바다로 가라앉는 꿈을 꾴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보고 싶어 날 깎아내린 너를
Chorus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들어 줄래 나의 모든 얘기 다
보고 싶어 날 깎아내린 너를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들어 줄래 나의 모든 얘기 다	널 부르는 나의 목소리가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희미해져 공중에 흩어질 때
Verse 2	그 때는 네가 나를 불러줄래
안아줘 누군가라도 좋아	너의 목소릴 듣고 싶어
놓아줘 날 잡아먹는 이름	

정말 보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무더질 줄 알았던 기억들이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졌고, 분노와 증오에 속아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리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느꼈던 것 같다. 보고 싶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지.

내게는 정말 미워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게는 보고 싶진 않지만,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 엄마,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노래이다.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낭만주의. 본 논문에서 쓰이는 낭만주의는 형식이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 충실한 음악을 말한다.



### (1) 곡을 쓰게 된 배경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나를 버렸고, 나를 미워했다고 생각했다. 7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난 후의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삶은 우울했고, 암울했다. 물론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들과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지내온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 동안 나는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과 아팠던 기억들을 잊으려 노력했다. 작년까지도 이런 나의 바람과 같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잘 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과 어울렸고, 많이 웃고 장난도 많이 치며 정말 평범한 듯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잘 살아가나 싶었는데 바로 작년에 꺾꽂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결국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항상 밤이 되면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에 선뜻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에 들지 않고 뒤척이는 그 시간동안, 이젠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형체가 없는 ‘친엄마’라는 존재가 자꾸만 나를 괴롭혀 왔다. 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나는 고작 지나간 일, 기억일 뿐임에도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완벽히 잊고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아픔들 속에서 엄마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내 머릿속에 좋지 못한 기억들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때의 엄마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터져버린 감정들을 다시 주워 담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보고 싶지는 않지만 듣고 싶어졌다. 형체가 없는, 흔적 또한 없는 그 기억을.

초등학교 3학년, 어렸던 나는 사진집을 펼치다 친엄마와 내가 찍힌 유일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지금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 복잡한 마음으로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었다. 그렇게 꼼짝이도 엄마의 흔적을 지우고, 숨기고 싶어 했던 나. 시간이 지난 후 지금의 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이제 엄마를 떠올려도 아무런 감정도, 미움도 남지 않는다. 그냥, 가끔 한 번씩 막연히 그리워질 뿐이다.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엄마가 보고 싶지는 않다. 그 때의 엄마, 어렸던 내가 기억하는 엄마가 보고 싶어질 뿐이다.

나는 이렇게 막연한 그리움과 과거의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대해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붙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 곡의 음악적 특징

‘라’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가장조이다. 1절에서는 아르페지오의 주법으로 곡이 진행되며, 첫 번째 코러스에서는 스트로크 주법으로 바뀌며 곡의 분위기가 고조되며, 절절한 멜로디라인과 잔잔한 통기타 반주가 인상적인 곡이다.

(3) 가사 해석, 의미

• Verse 1) 떠올려 / 그날의 기억 모두 / 흩어져 / 추운 겨울날의 입김

→ 친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된 첫날밤, 내가 느낀 그날의 밤을 써보았다. 아빠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아빠의 말을 들은 여섯 살의 나는, 내 짐들이 실린 트럭 뒤에서 조그마한 나무 블록을 든 채로 평평 울었다. 그 날이 너무 저릿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 Verse 1) 딱딱한 / 침대에 누운 채 / 바다로 / 가라앉는 꿈을 꾸

→ 매일 잠에 들기 힘들었던 작년의 나를 이야기 하고 있다. 내가 자주 꾸던 악몽들을 ‘바다로 가라앉는 꿈’이라고 표현했다.

• Chorus) 기다릴게 / 언제까지라도 / 보고 싶어 날 깎아내린 너를

→ 지금의 친엄마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저 그때의 엄마가, 엄마의 흔적이 그리울 뿐이고, 나는 그 흔적이 내게 먼저 찾아와주길 바란다. 그게 사진이든, 뭐든 간에 말이다.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말 같았다. ‘깎아내린 너를’이라는 구절은 감정이었던, 인생의 일부분이었던 내게 상처를 준 엄마를 나타낸 가사이다.

• Chorus) 들어 줄래 / 나의 모든 얘기 다 / 더는 아무것도 / 바라지 않을게

→ 누구라도 들어줬으면 했다. 나는 정말 썩어문드러지는데, 아무도 나의 이런 아픔을 모르다 보니 나 혼자 아파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잡은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었다. 친한 선배, 친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어린 위로와 힘을 받았다. 내게 간절했던 주변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나는 격한 감정들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 같다.

• Verse 2) 안아줘 / 누군가라도 좋아 / 놓아줘 / 날 잡아먹는 이름 /  
잡아줘 / 눈물 속에 잠겨 / 보고 싶단 말조차 못하잖아

→ 부모님과 떨어져 학교에서 생활하는 작년이 나에겐 버거웠다.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스스로 일어나야 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손길을 굉장히 갈구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안아줬으면, 잡아줬으면 했다. 숨겨야 했던 나의 비밀과

숨겨야할 것 같았던 사실들 때문에 맘 편히 '보고 싶다', '그립다' 한 마디 못했던 내가 조금은 불쌍하고 속상했던 것 같다.

• Chorus) 널 부르는 / 나의 목소리가 / 희미해져 / 공중에 흩어질 때 /  
그 때는 / 내가 나를 불러줄래 / 너의 목소릴 듣고 싶어

→ 작년의 그리움의 시기를 보낸 지금은 별 감정도, 기억도 남지 않았듯이 언젠간 잊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친엄마가 나를 먼저 찾아줬으면 한다. 가끔은 엄마를 찾아가는 상상을 하고는 한다. 내게는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다. 엄마가 나를 먼저 찾아줬으면 한다. 보고 싶지는 않지만 목소리는 듣고 싶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사에 담은 가사이다.

(4) 코드 진행

Verse1, Verse2 : C#M - Cm7 - A#m7 - C#m7 - A b m7

Chorus : C#M - Cm7 - A#m7 - C#m7 - A b m7 - C#M - Cm7 - Fm7 - G#M - A b m7

(5) 멜로디 악보

보고싶어

신주현

♩ = 90

1. 떠올려 그날의 기억모 두 흩어 - 져 추운겨 울날의 입김  
2. 안아줘 누군가라도 좋 아 놓 아 줘 날 값 아끼는 이 름

7. 딱 딱한 침대 에 누운 채 바다 - 로 가 라 앓는꿈 을  
잠 아줘 눈물 속 에 잠 겨 보 고 싶단 말 조 차 못하 잤

14. 뛰 기 다 탈게 언제까 지라 도 보 고 싶어 날  
아

21. 짝 아내린 너 플 붙 어 줄래 나의모 든에 기 다

28. 더는 아무 것 도 바라 지않 을 게 널 부 르는 나의

34. 목 소 리 가 희 미 해져 공 중 에 흩 어 질 때 그 때 는

41. 네가나를 불러 줄 래 너의목 소릴 듣고 싶어

## 2) '마음 냄새' 가사와 곡 소개

Intro	나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바라본 높은 하늘 날아다니는 새
Verse 1. 거울을 봤어 아직 때가 탄 얼룩진 얼굴을 씻고 집을 나서네	새처럼 살고 싶다고 나지막이 속삭여
깨끗한 바람이 불어 잎이 흩날려 아직까지도 가을의 향기가 가슴에 남아	Chorus 맘껏 맡고 싶어 태워진 마음 냄새를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로
Chorus 맘껏 맡고 싶어 태워진 마음 냄새를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로	맘껏 맡고 싶어 태워진 마음 냄새를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로
Interlude	Ending 평상 위의 나뭇가지 산 위의 빨강색 숲 흩날리는 단풍잎 난 눈을 감는다
Verse 2. 계절은 돌아오고 모두 제자리로	Outro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과 가을의 모습들, 가을이라는 계절을 살면서 느끼고 성장하고 배웠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노래이다. 가을을 보며, 가을의 안에서 생각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나의 바람과 다짐을 담고 있다.

### (1) 곡을 쓰게 된 배경

나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한다. 가을이란 계절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마 작년부터였던 것 같다.

작년 어느 가을날의 아침, 아무도 없는 학교의 도서관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한참을 있었다. 복잡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는 아파오고. 청소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나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누워있었던 것인지 어느새 학교의 분주한 아침청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인상을 찡그리며 눈을 떴다. 눈을 뜬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생태화장실 앞 빨강계 물든 단풍잎들이었다. 그 단풍 나무를 보고,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단풍잎의 색깔을 알았다.

동시에 내 머릿속엔 '나는 어떤 색깔일까?'하는 물음표가 찍혔다. '그 어떤 색조차도 없는 나, 있다 하더라도 색이 바랜, 물이 빠진 검정색, 어둠.'일 것이라 생각했다. 새빨간 잎사귀. 저 붉은 단풍잎 단 한 장과 견주어보아도 비교가 되는 나의 초라한

색깔에 나는 씩씩한 뒷모습을 남긴 채 소파에서 일어섰다.

한참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 색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세면대로 향한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엔 아직도 때가 끼었다. 조금은 괜찮아져 물이 빠지다 만 검정색에서 이제 조금 새하얀 도화지와 같아지고 있는데, 새하얀 색이 되면 그 위에 덧그리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은데. 아직까지도 때는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을 나서면 가을의 향기가 난다. 희망이 없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 나는 가을의 향기를 떠올렸다. 깨끗한 바람, 흔들리는 알록달록한 생명들, 높은 하늘과 그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철새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굴뚝의 연기 냄새와 벗짚을 태우는 냄새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싶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벗짚을 태우는 냄새였다. 향긋하고 정겨운 냄새들을 맡다보면 문득, 벼 껍질 마냥 벗겨낸 내 감정들을 태우는 듯한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언젠가 힘을 빼는 고민들, 나를 향한 미움과 증오, 과거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썰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무서움. 이 모든 때들이 저 벗짚처럼 활활 타올라 구수한 향을 내뿜는 날이 오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결코 쓸모없는 감정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 가을처럼,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훌쩍 찾아와버린 작년의 가을, 나는 나와는 달리 매년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안정적인 가을과 마주한다.

가을의 안에서 느낀 것들과, 나를 돌아봤던 소중한 시간들을 곡에 담고 싶었다.

## (2) 곡의 음악적 특징

‘도’를 으뜸음으로 한 다장조의 곡이다.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같은 조이며, ‘아침이슬’에 등장하는 Em, Am 등의 코드들을 적용해 웬지 우울한 듯 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반주와 멜로디 라인이 단조로우며, 곡의 화려함보다는 가사와 곡의 메시지에 더 집중해 반복적인 코드 진행과 멜로디 라인이 돋보인다.

## (3) 가사 해석, 의미

• Verse 1) 거울을 봤어 / 아직 때가 탄 / 얼룩진 얼굴을 씻고 / 집을 나서네

→ 거울에 비친 것은 나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비친 거울에서는 때가 탄 나의 모습이 보인다. 힘들었던 과거와 작년의 감정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를 ‘때가 탄’, ‘얼룩진 얼굴’이라 표현했다.

‘집을 나서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의 아침,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일상적인 장면을 서술했다.

• Verse 1) 깨끗한 바람이 불어 / 잎이 흩날려 / 아직까지도 가을의 향기가 / 가슴에 남아

→ 집을 나서며 학교에 가는 등곳길에 느낀 가을을 표현하고 있다. ‘깨끗한 바람’, ‘흩날리는 잎’. 이 모든 것이 가을의 향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절의 향을 맡을 수 있는데, 이 향에 바람과 잎, 다양한 자연들이 포함된다고 느꼈다.

‘아직까지도’와 ‘가슴에 남아’ 부분에서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가을의 인상 깊은 잔향과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 Chorus) 맘껏 맡고 싶어 / 태워진 마음 냄새를 / 날아가고 싶어 / 저 하늘의 끝으로

→ ‘태워진 마음 냄새’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가을 날, 학교의 시골길을 걷다보면 벚짚을 태우는 냄새인지, 장작이 타는 냄새인지 모르는 구수한 향을 맡을 수 있다. 나는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한다. 가을을 떠올리고, 이 향을 떠올리다보니 이 가사가 생각이 났다.

한때 치솟았던 분노와 슬픔과 착잡함. 이런 것들에 가까운 생각과 감정들 속에서 허우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모든 감정들이 무르익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무르익은 나를 보게 된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과 한 발짝 성장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지난 모습들을 볼 때 태워보면, 썩은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벚짚을 태우는 것 같은 구수한 향이 가득 퍼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타오르면서 정겨운 향을 내는 벚짚들은 탈곡이 끝난 후 남은 벼의 껍데기들인데, 벼의 껍데기들처럼 내가 벗겨낸 감정의 잔해들도 태우면 저런 구수한 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가사이다.

‘저 하늘의 끝으로’ ‘날아가고 싶어’는 정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쓴 가사이다. 눈으로 올려다본 가을의 하늘은 언뜻 보기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높다. 그 끝이 없는 하늘의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끝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높이만큼 날아 오르고 싶다는 의미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었든, 하고 있는 일이 되었든 앞으로의 내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마음도, 정신도 끝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전하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하다. 나의 한계와 성장의 끝을 규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포함된다.

• Verse 2) 계절은 돌아오고 / 모두 제자리로 / 나는 그 자리로 / 돌아오지 못했는데

→ 어떻게 보면 계절은 참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늘 변함없이 때가 되면 시기에 맞춰 오면 되니까. 하지만 그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늘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절, 그 계절을 보면서 나는 항상 불안했던 것 같다.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시간은 가고, 다시 똑같은 계절을, 똑같은 풍경을 마주하고... 폭염 속에 여름을 나고, 올해의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내게 물었다. '올해의 가을, 나는 과연 제자리로 돌아왔을까?' 그런 내게 나는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대답해주었다. 2년 남짓, 누군가는 사춘기, 누군가는 우울증이라고 말한 그 시기를 겪어내고 이겨내며, 지금은 진정한 나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 스스로 괜찮다고,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자리에 있는 나를, 안정적인 가을과 견주어 보았다.

• Verse 2) 바라본 높은 하늘 / 날아다니는 새 / 새처럼 살고 싶다고 / 나지막이 속삭여

→ 코러스의 '날아가고 싶어 / 저 하늘의 끝으로'라는 가사와 비슷한 맥락의 가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러스의 해석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다.

• Ending) 평상 위의 나뭇가지 / 산 위엔 빨간 색 숲 / 흩날리는 나뭇잎 / 난 눈을 감는다

→ 내가 가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플라타너스 나무 밑 평상에서 올려다 본 풍경이다. 작년 가을 즈음, 평상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하늘이 보고 싶어져서 바로 자리에 누웠는데, 플라타너스 나무의 긴 가지들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하늘을 보려고 누웠지만, 하늘을 가린 나뭇잎들도 좋고,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학교 뒷산들의 알록달록 밝은 빛의 나무들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느낀 이러한 풍경들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가사이다.

'눈을 감는다'는 것의 의미는 나른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몸으로 온전히 느끼기 위해 감는 눈을 이야기 한다. 편안한 상태에서 쓰는 '저절로 눈이 감긴다'의 의미와 비슷한 느낌으로 쓴 표현이다. 안정된 내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나타냈다.

#### (4) 코드 진행

**Intro ~ Outro** : C - E7- Am - G - F - G - C 반복.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코드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5) 멜로디 악보

# 마음냄새

신주연

$\text{♩} = 110$

C E7 Am G F G C C E7 Am G

거울을봤 어 아직때가 탄 얼룩진얼 굴 을 씻 고

7 F G C

집을나서 네 깨끗한파 람 이 불 어 잊이흔날 려

13

아직까 도 가 을 의향기 가 가슴 에남 아 맘껏말고싶어 -

19

- 태워진마음냄 새를 날아가고 싶 어 - 저하 늘의끝

24

으로 계절은돌아오 고

31

모두제자 리 로 나는그자 리 로돌아 오지못 했는데

37

바라본높은하늘 날아다니 는 새 새처럼살고싶 다

42

고 나지막 히 속삭여 맘껏말고싶어 - 태워진마음냄 새

48

를 날아가고 싶 어 - 저하 늘의끝 으 로 평상위엔 나 못

54

가지 산 위의빨간 색 숲 을 날리는 나 못있 난눈을 감는다

60

라라라 라 라 라 라 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 라 라 라

66

라 라 라 라 라 라



### 3) '낮선 세상' 가사와 곡 소개

<p>Verse 1.</p> <p>난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어색해 늘 상 걷는 거리와도 아직 서먹해</p> <p>낮선 도시에서 매일을 살고 있어 내겐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p> <p>오늘의 공기가 어제와는 달라서 이젠 숨을 쉴 수 있어</p> <p>Chorus</p> <p>새카만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 뜨거운 잔향만이 나를 감싸네 남은 건 새벽녘 별들의 작은 속삭임뿐 인 걸 오 오 오 오</p> <p>Verse 2.</p> <p>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해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이지 않을까</p> <p>기대하는 내가 익숙해질 때 쯤 주변 친구들은 나를 보며 말했지</p> <p>전보다 내가 많이 좋아 보인다고 맞아 그때보단 많이 좋아 졌어</p>	<p>Chorus</p> <p>새카만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 뜨거운 잔향만이 나를 감싸네 남은 건 새벽녘 별들의 작은 속삭임뿐 인 걸 오 오 오 오</p> <p>Bridge</p> <p>사실 잘 모르겠어 아직도 눈을 뜨면 더욱 선명해진 그림자가 보여</p> <p>하지만 그 그림잔 악몽에 불과해 이젠 난 널 이길 수 있어</p> <p>Chorus</p> <p>새카만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 뜨거운 잔향만이 나를 감싸네 남은 건 새벽녘 별들의 작은 속삭임뿐 인 걸 오 오 오 오</p> <p>Ending</p> <p>오늘은 따뜻한 해가 뜨겠지 까만 어둠은 가고 빛이 들겠지 모든 건 다시 제자리 그대로 돌아 올 거야</p>
--	---

모든 것은 분명 그대로인데, 바뀌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나를 보니 세상마저 새롭고 어색하다.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던 고통 속에서, 한 발자국 성장한 내가 나를 끼고 돌아가는 작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나의 성장, 나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낮게 읊조리듯이 들려주는 곡이다.

'모든 건 다시 제자리 그대로 돌아 올 거야'라며 건네는 진심어린 격려의 메시지, '하지만 그 그림잔 악몽에 불과해'라는 말로 그게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진지한 조언. 이 모든 것이 내게, 그리고 모두의 '나'에게 까만 어둠을 보내고 들어온 자그마한 빛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한다.

### (1) 곡을 쓰게 된 배경

지난 2년 간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어서 썼다. 정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지난날들의 나에게 바치는 노래이다.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노래이기도 하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던 걸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사랑이 힘들었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힘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라는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던 날들이 지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렸던 것 같다.

나는 이번 여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하고 나에게 물었다. 정말 나를 위로하고 위하는 사람들의 말이 과거의 나를 일으켰고, 내게 조금 먼발치서 떨어져 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조금은 괜찮아졌던 것 같다.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난 후의 나의 일상은 이제껏 살아왔던 매일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지금 내가 너무도 낯선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한다. 과거의 내가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지옥을 오갔었다면,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년 전 어리고 나약했던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졌다. 잘 이겨 낼 거라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 자신을 믿어도 좋다고. 항상 채찍질만 했던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

### (2) 곡의 음악적 특징

'라' 음이 으뜸음인 가장조이다. 멜로디 라인이 단조로운 편이다. 리듬은 복잡하고 빠르며, 곡의 비중의 반을 차지하는 Verse 1,2의 영향 때문에 곡의 전체적 분위기는 이야기를 읊조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브릿지를 통해 고조된 곡의 분위기와 느낌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두 번째 코러스에서 나장조로 전조<sup>15)</sup> 된다.

### (3) 가사 해석, 의미

#### • Verse 1) 난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어색해

→ 작년에는 거의 매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과거 나는 매일 밤 자다 깨다를 반복했고, 매일 밤을 지새웠었다. 별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불면증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게 맞이한 아침은 매우 불쾌했던 기억이 난다. 태양과도 마주치

15) 곡의 조성을 바꾸는 작곡 기법(modulation). 곡에서 진행 중이던 조에서 다른 조로 바뀌어 곡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기법이다. 순우리말을 써서 '조바꿈'이라 하기도 한다. - 전조(음악), 나무위키, 전조(음악), 2018년 10월 1일,

([https://namu.wiki/w/%EC%A0%84%EC%A1%B0\(%EC%9D%8C%EC%95%85\)](https://namu.wiki/w/%EC%A0%84%EC%A1%B0(%EC%9D%8C%EC%95%85)))

고 싶지 않았고, 눈을 뜨면 보이는 천장과도 영원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사실, 평생 잠만 자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면 평생 내일이 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마주하던 불쾌한 태양이, 내가 조금 일어난 순간부터는 나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내가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고, 나는 정말 변함이 없는데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해가 뜬 것 같이 굉장히 신기하고 어색해했던 경험을 가사에 담았다.

• Verse 1) 늘상 걷는 거리와도 아직 서먹해 / 낮선 도시에서 매일을 살고 있어

→ 앞서 서술했던 ‘태양과 어색해’라는 부분과 비슷한 맥락의 가사이다. 작년의 나는 늘 거리를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도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항상 바닥을 보고 이야기 했고, 무엇을 하든 표정에 그들이 잔뜩 드리워져 있어서 주변 어른들로부터 얼굴을 피라는 지적을 자주 들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사람의 눈도 맞추고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밖에 나가 거리를 걸을 때도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습이 아직 내게는 적응 되지 못한 부분이어서 ‘서먹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낮선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 Verse 1) 내겐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 / 오늘의 공기가 어제와 달라서 / 이젠 숨을 쉴 수 있어

→ 1절의 모든 가사는 아마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너무도 공격적이고 예민했던 과거의 내 모습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느끼는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공기마저도 낯설게 느껴졌다 보다. ‘이젠 숨을 쉴 수 있어’라는 가사는 숨통이 트여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내 모습에 안도하며 썼던 것 같다.

• Chorus) 새카만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 / 뜨거운 잔향만이 나를 감싸네 / 남은 건 새벽녘 별들의 작은 / 속삭임뿐인 걸

→ 있는 그대로 봐도 크게 상관은 없다. 명확한 뜻을 가지고 가사를 썼다기보다는 내가 그 시간들을 지나오며 느꼈던 것을 일기 쓰듯이 써내려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이후 변화한 내가, 과거의 나를 생각하며 만든 이 노래의 상징적인 가사라고 할 수 있다. 힘든 시기가 나에게 남기고 간 것을 표현한 가사이다.

‘새카만 어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다. ‘하늘을 삼키다’라는 것은 밤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깊어지고, 어두워지는 어둠을 이야기 하고 있다. ‘뜨거운 잔향’은 낮의 태양이 남기고 간 온기와 빛을 이야기 하

고 있다. 즉, 나의 친구들과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어둠이 나의 세상을, 방향이 내 세상을 삼켜버렸지만 내게 주던 힘, 그러니까 태양의 뜨거운 잔향들이 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있다.

‘새벽녘 별들의 작은 속삭임’이라는 부분은 이런 침체된 내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깊은 어둠에서 아침이 오는 시간인 ‘새벽’에 희망을 꿈꾸기 시작한 것, 그 상황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을 어둠 속에 있어야만 빛을 내는 별에 비유했다.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 경험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에서 써내려간 가사이다.

• Verse 2)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해 /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이지 않을까 / 기대하는 내가 익숙해질 때 쯤 / 주변 친구들은 나를 보며 말했지 / 전보다 내가 많이 좋아 보인다고 / 맞아 그때보단 많이 좋아졌어

→ 올해 이 노래를 쓰고 있을 때 쯤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던 극단적이고 비관적이었던 내가,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을 깨달았다.

내일을 기대하기도 하고, 정말 푹 잠에 들어 기분 좋게 일어나기도 했다. 어떤 선배가 내게 물었었다. 요즘 좋은 일이 있는 거냐고. 작년이랑 얼굴, 표정 자체가 다르다고 말이다. 주변 친구들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진심으로 말해줬었다. 이런 경험들을 담은 가사이다.

• Bridge) 사실 잘 모르겠어 / 아직도 눈을 뜨면 / 더욱 선명해진 그림자가 보여  
하지만 그 그림자 / 악몽에 불과해 / 이젠 난 널 이길 수 있어

→ 사실 가끔은 정말 나를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 잘 이겨낸 것인지, 작년의 나에서 완벽히 성장한 것이 맞는지. 시도 때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 감정들과 생각들. 이런 번덕스런 마음들과 불쑥 올라오곤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럴 때마다 모두 내가 이겨낸 것들, 이길 수 있는 것들임을 알면서도 나약해지고는 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말이다. 그런 마음에서 쓴 가사이다.

• Ending) 오늘은 따뜻한 해가 뜨겠지 / 까만 어둠은 가고 빛이 들겠지

모든 건 다시 제자리 그대로 / 돌아올거야

→ 이 가사는 이 곡의 가사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인데,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아니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어둠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더 단단해질 수 있게끔 나를 복돋아 주기 위해 쓴 가사이고, 실제로도 내가 쓰고, 부르면서 정말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다.

(4) 코드 진행

Verse1, Verse2 : A - C#m7 - D - Dm7

Chorus : A - C#m7 - D - Dm7 - C#m7 - F#m7 - Bm - E - A

Bridge : C#m7 - F#m - B - G#

Chorus2, Ending : B - D#m7 - E - Em - D#m7 - G#m7 - C#m - F# - B

(5) 멜로디 악보

낮선 세상

신주현

♩ = 105

1 난 매일떠오르는 태 양과 어색해 늘상 걷는 거리 와도 어지서며 해  
5 낮선 도시 에서 매일을 살고 있 어 내 겹모든 것이너 무  
10 나새로워 오늘 의공 기가어-제 원달라서 이 겹 숨을 쉴수  
15 있 어 새카만 어둠 은하늘을삼 키고 - 뜨거운 잔 향만 이 나 들  
20 감싸네 남은 건 - 새벽 녀 별 들 의작 은 속삭 임뿐 인 걸 Uh Uh -  
25 - Uh Uh - 매일밤침 대에누워 내일을생각해 내일은조금다른하  
30 루이지않을까 기대 하는 내 가 의 속 해질 때쯤 주변  
35 친구들은나를보며 말했지 전보다 내가 많이 좋아보 인다고 맞아  
40 그대 보 단 많이 좋아 졌어 새카만 어둠 은하늘을삼  
45 키고 - 뜨거 운 잔향만 이 나 들 감싸 네 남은 건 - 새벽 녀  
49 별 들 의작 은 속삭 임뿐 인 걸 Uh Uh - Uh Uh -  
55 사실잘 모르겠 어 아 직 도는 을뜨 면 더욱 선명해 진 그림자 가  
61 보여 - 하지 만 그 그림자 악 몽 에 불 과해 이젠 난  
67 날이길수있 어 새카만 어둠 은하늘을삼 키고 - 뜨거운 잔향  
72 만 이 나 들 감싸네 남은 건 - 새벽 녀 별 들 의작 은 속삭 임뿐 인 걸  
78 Uh Uh - Uh Uh - 오늘은 파뭇안해가뜨겠 지 까만어  
84 둠은가고 빛 이 들겠 지 모든 건 - 다시 제 자 리그대로 돌아올 거  
90 아

#### 4) '타임캡슐' 가사와 곡 소개

Verse 1. 함께하던 모든 순간들이 오늘 사라졌고 너를 보내려던 내 마음도 벌써	없는 듯 죽은 듯 없던 이야기가 돼
접힌 채 숨긴 채 묻어두고 모른 채 잊은 채 지난 이야기가 돼	Chorus 묻힌 기억들 그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열어보자 우리 마른 잎이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만나
Chorus 묻힌 기억들 그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열어보자 우리 마른 잎이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만나	Bridge 타임캡슐 속에 넣어둔 내 맘을 그 땐 네게 들려주려 해
Verse 2. 이젠 우리들의 시간들도 물어버렸고 묻은 우리라는 추억들이 아직 숨 쉬고 막 웃고 살아있는데	Chorus 묻힌 기억들 그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열어보자 우리 마른 잎이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만나 (만나)

이 노래는 헤어짐이라는 과정을 겪은 뒤 나타내는 증상의 이중성을 담고 있다. 맞닿아 있던 '우리'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아프지 않기 위해 땅 속에 묻어두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꿈틀대는 그리움과 미련들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 드는 수많은 감정들. 하지만 대개 나는 폭풍처럼 밀려오는 그 감정들을 감당하기가 버겁고 두려워 도로 다시 마음속으로 집어넣으려 했었다. 이별과 헤어짐의 대상을 직면하기 힘든 내가 조금 더 성장한 내가 된 다음에, '우리'의 기억들을 웃으며 꺼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타임캡슐'에 비유해 풀어냈다.

##### (1) 곡을 쓰게 된 배경

모든 사람은 이별을 한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든, 몸이 멀어지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와 헤어지고, 떠나보내고,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 잊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 사이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하고는 한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다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새로운 인연이 닿고, 새로운 무언가와 마주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나에게, 항상 이별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나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했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기도 했다. 감정싸움으로 어긋나버린 누군가와도,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과의 이별도 있었다. 서로 약감정만이 남은 헤어짐을 많이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던 사람들과 이별한 뒤에 남은 그 사람들의 단점과 허점이 가득한 기억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적이 있다. 나는 대체로 나를 괴롭히는 과거 그 사람의 모습과 이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잊으려, 덮으려, 회피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별로 인해 당장은 납득할 수 없었던 감정과 휘몰아치던 생각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잊혀 지기도, 무뎠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잊힌 어떤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그 기억을 더듬어 보았을 때, 나는 괴로워지기도 외로워지기도 했다. 시간이 약이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지나가버린 과거를 되돌아 볼 때,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나를 마주했다. 처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픽-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나는 흠칫 놀랐다. 정말 날 아프게 한 사람이었는데. 서로 상처를 내기도, 받기도 했던 사이였는데. 스스로가 그 시간과 어떤 사람과의 이별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그 깨달음 이후로 시간을 두는 것은 좋지만, 나를 지키려 계속 이별을 부정하거나 도망가려는 태도는 오히려 나를 해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절대 이별을 하찮게 여기고 싶지 않다. 여정과도 같은 이 과정에서 익숙함을 놓는다는 것은 항상 내게 어려운 과제와도 같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별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한 곡을 쓰게 되었다.

## (2) 곡의 음악적 특징

송민혜 선생님(제천간디학교 음악교사)께서 내가 만든 세 곡을 들어보시고, 박자가 너무 잘게 쪼개져 멜로디라인이 복잡하다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조언을 받아 덜 복잡한 멜로디 라인을 만들려 노력했고, 가사를 쓸 때부터 그 점에 유의했다. '라'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가장조의 곡이며, 반복되는 리듬과 음으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끔 했다. 브릿지에서 가장조에서 올림 가장조로 전조해 곡의 분위기를 더 띄워준 다 음, 마지막 코러스로 노래를 마친다.

## (3) 가사 해석, 의미

다른 곡들에 비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 **타임캡슐** → 타임캡슐은 말 그대로 추억이 될 만한 물건이나 편지 따위를 밀봉하여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열어 추억을 확인하는 캡슐이다. 그 캡슐 속에 이별을 하면서의 기억들과 감정들을 넣어두었다가, 언젠가 다시 꺼내보자는 이 노래의 총체적 의미를 담고 있다.

• **마른 잎** → 싱그러웠던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말라비틀어지는 것처럼, 이별 후에도 서서히 서로가 무뎌지고 잊혀지는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 **‘마른 잎이 다 떨어지면 그 때…’** → ‘떨어지는 마른 잎이 쌓여서 더 따뜻해지는 그 때’라는 가사와 의미가 이어진다. 비록 말랐고, 생명마저 잃었지만 한편으로는 잎들이 점점 쌓이고 모이면서 타임캡슐을 묻어놓은 땅에게는 온기와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수많은 잎들이 떨어지고, 썩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땅은 더욱 더 단단해지고 기름져지는데 나또한 떨어지고 마르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 더 단단해졌을 때 어떤 이별과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며 꺼내고 싶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가사이기도 하다.

(4) 코드 진행

Verse 1,2 , Chorus: G# - Cm7 - A#m7 - D#7(9)

Bridge: C#m7 - Cm7 - B - D - E

Chorus 2: A - C#m7 - Bm7 - E#7(9)

(5) 멜로디 악보

타임캡슐

신주현

79  
마른 잎이 다 떨어지면 - 그 때 다시 - 만나 - 타임캡  
85  
슐에 넣어 둔 내 맘을 그 때 네게 들려주려 해 - 아픈  
91  
기억들 그 시 간이 오면 - 그 때 열어 보자 우리 - 마  
99  
른 잎이 다 떨어지면 - 그 때 다시 - 만나  
109  
- 그 때 다시 - 만나

1  
1. 함께 하던 모든 순간들이 오늘 사라졌고 너를  
8  
보내려 던 내 마음도 - 벌써 - 접힌 - 제 숨길  
16  
- 제 Uh Uh - 묻어 두고 모른 채 - 숨길  
24  
- 지난이 - 야기가 돼 아픈 기억들 그 시 간이 오면 -  
31  
- 그 때 열어 보자 우리 - 마  
38  
- 그 때 다시 - 만나 - 2이젠 우리들의 시간  
46  
들도 묻어 버렸고 묻은 우리라는 추억들이 - 아  
54  
지 - 숨쉬고 막웃고 Uh Uh - 살아 있는데  
63  
없는 듯 - 죽은 듯 - 없던 이야기가 돼 아픈  
71  
기억들 그 시 간이 오면 - 그 때 열어 보자 우리 - 마



### III. 결론

#### 1. 작품평가

##### 1) 간디인 평가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에 공연 형태로 작품 발표가 진행되었다. 작품발표에  
서 표1의 내용으로 평가지를 돌렸으며, 각각 학부모 7명, 학생 8명으로 총 15명이 응  
답했다. 평가지 결과 내용을 서술한 다음, 내용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표 1> 작품 평가지

신주현 논문 작품 평가지	
	(학부모/교사/학생) (학년: )
1. 각각 네 곡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나요?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고 싶어 -</li><li>• 마음 냄새 -</li><li>• 낯선 세상 -</li><li>• 타임캡슐</li></ul>
2. 네 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혹은 마음에 든 구절이나 가사가 있다면 무엇 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고 싶어 -</li><li>• 마음 냄새 -</li><li>• 낯선 세상 -</li><li>• 타임캡슐</li></ul>
3.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 1. 각각 네 곡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나요?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 보고 싶어 - 입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났다. / 마음의 문을 열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 약간 진짜 누군가를 보고 싶어 그리움에 담긴 느낌이 들었다.  
/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좋았다. /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느낌이 들어요.♡ / 뭔가  
어두우면서도 밝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좋았다. / 잘 전해진 것 같아요. 노래가  
마음을 울려요. / 적당한 감정선에서 연주되어서 담백했다. / 기타소리보다 노래  
목소리가 작아서 가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 너무 잘 되었다.

마이크 소리보다 기타소리가 커 가사의 전달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곡이 전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음향문제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대체적으로 나의 메시지와 마음들이 잘 담겼다고 평가해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떠

올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니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간절함 등이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 **마음 냄새** -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되는 노래. 기분이 좋아진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곡인 것 같다. 평상에 누워 내 마음 타는 냄새도 맡고 싶다. / 자유롭게 싶지만 아직은 주춤하는, 막 꿈을 꾸는 두려움과 희망. / 마음냄새가 구수하고 낚적하고 예쁘구나. /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게 있었다. / 감성적이다. 노래 좋다. / 가볍게 걷고 있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 설명했던 대로 가을의 느낌이 났던 것 같다. /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 깨끗했다. 우울했던 과거에서 긍정으로 간 게 아닌, 허물을 벗고 나온 연하고 어린 나비 같았다. / 리드미컬한 선율과 짙은 가사가 가을 느낌 물씬 느껴졌어요. / 최고였다. 들으면서 그 계절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곡에 실으려고 했던 가을의 느낌들과 풍경들,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한 나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리드미컬한 선율, 주법이 좋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듣는 이가 계절을 상상하기도 하고, 자신의 타는 마음냄새도 맡고 싶다고 감상평을 남겨준 것을 보니 내가 의도 했던 대로, 쓴 대로 곡이 잘 전달된 것 같다.

• **낮선 세상** - 가장 공감이 되는 같다. 따봉 / 두려움 없이 서로 의지하며 파이팅! / 잘 모르겠다. 좋았다. / 밝은 햇살 아래서 조금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느낌이에요\* / 나도 느꼈던 감정이라 들으면서 계속 공감이 됐다. /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조금은 슬픈 느낌이었어요. / 편안한 음악이었다. 왠지 모르게 울적했다. / 토닥토닥. 힘이 나는 노래. / 너무 좋고, 그때를 상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다.

이 노래 또한 음향적인 부분 때문에 곡의 전달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평가지에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힘이 나는 노래'라며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구체적인 느낌을 상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본 논문의 목적인 '공감'과 '경험 회상'등을 실현한 곡인 것 같다.

• **타임캡슐** - 따봉이다. 헤어짐과 그리움 잘 나타낸 것 같다. / 지나온 어느 시간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보자는 ? / 이별도 새로운 시작이듯~ 하루하루 순간과 만남에 충실하길. / 좋았다 /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예요.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요.☆ / 정말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노래 진짜 좋다... /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도 잘 될 듯. / 가장 좋은 가사인 것 같다. 음도 감정이 잘 들어간 듯. / 노래 너무 좋아요!☺ / 너무 좋고, 그때를 상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다.

가사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헤어짐과 그리움에 대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노래 자체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기도 했다. ‘음에 감정이 잘 실렸다’, ‘잘 표현 된 것 같다’ 등의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의 공감도 잘 되었던 것 같다.

• 전체적으로 - 인정 이거 다 명작 / 조미료가 없는 요리를 먹은 느낌. 심심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 멜론에 노래로 나왔으면... / 곡의 느낌이 따뜻하고 좋아요. /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되는 노래.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만든 포크 음악의 약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심심한 느낌’이 든다고 평가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가사가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다 보니 단조롭고 심심한 멜로디와 코드 진행, 흐름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장르 자체에 대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테크닉적이고 심심치 않은 곡을 만들기에는 내 역량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곡을 들은 뒤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기분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다. 대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 2. 네 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혹은 마음에 든 구절이나 가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사람들이 어떤 가사를 가장 인상 깊게 들었고, 마음에 들어 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로 한 질문이었는데, 실제로 가사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 **낮선세상** - ‘뜨거운 잔향만이 나를 감싸네 남은 건 새벽녘 별들의 작은 속삭임 뿐인걸’ / ‘새카만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 / 다 좋다 / ‘모든 건 다시 제자리 그대로 돌아올거야’ / 모든 가사가 다 좋았다. / 웬지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슬퍼요.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 첫소절이 좋았어요:) 노래 자체가 좋았습니다:) / ‘이제 숨을 쉴 수 있어’
- **타임캡슐** - ‘마른 잎이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만나’ 6 / ‘묻힌 기억들 그 시간이 오면 그 때 다시 열어보자 우리’ / 모든 가사가 다 좋았다./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 **보고싶어** - ‘보고싶어 날 껏아내린 너를’ 2/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 전부 마음에 들어요. 주현이가 마음에 있는 말들을 잘 꺼내어서 쓴 것 같아 보여요. / 모든 구절이 좋았어요! / 가사가 잘 안들렸어요ㅠ
- **마음냄새** - ‘흠날리는 단풍잎 난 눈을 감는다’ /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의 끝으

로' 3/ 나의 마음 냄새는 무엇일까? -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향기! / '맘껏 말  
고 싶어 태워진 마음 냄새를' 3 / 모든 가사와 멜로디가 좋아요. 마음도 귀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가사였어요. / 너무 취져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 처음  
부터 끝까지!

• **전체적으로** - 가사는 잘 안들렸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다.

### 3.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너무 공감되고 정말 최고고 멜론에 있다면 스트리밍 돌려서 내가 1위 시켜줄 수  
있고 세상 최고로 멋지고 멋지고 멋지고 대단하고 엄청난 곡들이다. 이 종이에 다  
담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수고 많았고 사랑해요. 발표까지 힘내요♡ /  
메시지가 잘 안들려요 좀 더 자신있게 소리가 나왔으면~/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  
다 / 자신감있게 살아보자! Good! /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 또박또박 곡 설명  
해주는 주현이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져요. 예쁜 곡들 잘 들었고 마음이 한결 가  
벼워졌어요! / 진짜 멋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같  
이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진짜진짜 응원합니다ㅋㅋ / 주현언니는 내 인생 멘토에  
요. 언니 사랑해요♡ / 주현이 파이팅!! 논문 끝나고 날 찾아와요!! / 적당한 멘트  
들이 공연을 더 풍성하게 해줬어요^^ 논문 파이팅!! / 응원합니다. 파이팅!! / 이  
대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논문 힘내세요:) / 자신의 느낌, 감정을 노래로 표현  
하는 모습 멋져요!! / 기타, 노래, 목소리 너무 좋아요 / 계속계속 듣고 싶은 노  
래입니다

두 번째 평가로, 10월 6일 작품전시 기간 동안 설치해 둔 노트북 영상으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소감을 받았다. 총 16명이 작성해주었으며 대체적으로 '좋았다', '공감  
되었다' 등의 평가를 해주었다.

'보고싶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첫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사실 마음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보고싶은 사람이 생각났고, 그 때의 너의 감정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냄새'는 멜로디부터가 상  
쾌한 가을 느낌이에요! 뭔가 나까지 상쾌해진 느낌♡ / 가사도 좋고 주현이 목소  
리 넘 최고♡ / 최고! 진짜 최고! / 세 곡 다 모두 가사와, 느낌이 너무 좋았어  
요! 특히 '보고싶어'랑 '낮선세상'이 너무 좋아요♡ 꼭 앨범 만들어주세요! 매일매  
일 듣고 싶은 노래예요:) /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울컥해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상 속 주현이의 모습

이 너무 예뻐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듣게 되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파일 받고 싶습니다. 마음냄새와 보고 싶어 진짜 최고예요!! / 1. 우선은 본인의 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곡의 가사에 대한 이해는 잘 되었습니다. 2. 전체적인 곡이 가사와 어울려 좋았습니다. (각 노래의 톤은 조금씩 달랐지만, 경쾌한 느낌으로 담담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듣는 저도 하여금 참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였어요...) 3. 듣기에 좋았구요 “작곡, 작사” 본인의 느낌에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마음냄새 : 가을의 향기가 나에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 낮선세상 너무 좋아요 / 세 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주현이의 마음을 참 일상적인 언어로,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곡 모두 마음을 울리네요. 특히 ‘보고싶어’라는 노래에서는 울컥했네요. 주현이의 성장과정이 고스란히 표현된 곡들이라 정말 소중한데요. 고생 많았어요. / 곡을 작곡했다는 거 자체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고싶어’라는 곡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편으론 존경스럽네요. 잘 들었어요~ / 자신이 하고 싶은 생각과 말과 마음을 운율과 리듬과 가사로 표현하고 답는 것이 참 부럽네요. 노래의 완성도 보다는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느낌과 감성만으로도 참 소중하리라 생각돼요! 잘, 들었습니다. / “보고싶어”라는 곡의 담고자 했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노래 좋습니다!(가장) 수고 많았어요!! / 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싶어요. 특히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 너무 잘 어울려요. / 갈수록 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멋진 노래 계속 기대할게요. / 노래가 너무 좋아요:) /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마음이 편해져요.

## 2) 전문가 평가

실제 포크음악을 만들고 부르시는 포크아티스트 김사월님께 아래 <표 2>의 질문들로 평가를 받았다.

<표 2> 내가 만든 포크 음악 평가 질문

1. 네 곡의 느낌은 각각 어땠나요?
2. 이 네 곡의 장르가 ‘포크’ 장르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네 곡의 흐름(코드진행, 멜로디 진행 등)은 어땠나요?
4.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곡에 잘 담긴 것 같나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었나요?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님 안녕하세요? 김사월입니다.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곡들이고 중대한 일인데 제가 음악 평을 못하는 편이라 좀 걱정

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써봅니다.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글을 썼으니 많은 의견중 하나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들이 너무 좋았어요.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가을되시길 바랄게요. -김사월

### 마음 냄새

80년대 한국 포크 가요, 컨트리 같은 무드가 있는 곡.

단순하지만 명료한 코드와 멜로디 진행으로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벌스와 코러스가 서로 잘 어울려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애정과 더 나은 날을 꿈꾸는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 낮선 세상

2000년대 포크록 무드가 느껴지는 곡.

보컬 멜로디가 반복이 적고 조곤조곤한 느낌이라 찰랑찰랑하고 게인이 낮은 일렉기타로 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질감 자체가 듣기 좋은 상태에서 지금의 멜로디가 붙으면 더 서사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개인의 고민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 보고 싶어

2000년대 포크록 무드가 느껴지는 곡. 도입부가 듣기 좋았습니다.

코드들이 세련된 느낌과 슬프지만 애써 괜찮은 느낌을 주는데 마이너 세븐 코드 중에 네추럴 마이너 코드만 썼을 때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노래를 전체 반키를 높였을 때 괜찮은 느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슬프고 쓸쓸한 느낌이 솔직할수록 멋있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슬픔으로 변한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 타임캡슐

2000년대 포크같은 곡. 편안하고 듣기 좋은 코드이고 후렴 멜로디가 좋았습니다.

소중한 것들과 이별하는 자세를 담은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벌스에서 쓰는 기타 주법이 잘 어울리고 좋지만 조금 급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 더 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기타 주법의 느낌 '박보영 - 아마도 그건([youtu.be/WrpA3u9KOqs](https://youtu.be/WrpA3u9KOqs))'

참고할 만한 느낌 '아이유 - 밤편지([youtu.be/4Vs25c7dzTQ](https://youtu.be/4Vs25c7dzTQ))'

## 전반적으로

- \* 벨스에서 후렴으로 갈 때 코드 진행을 조금 다르게 하거나 코드의 변형이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 가사를 쓰게 된 사연이 좋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다듬지 않고 가감 없이 써도 개성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 지금은 기타와 보컬의 톤이 균일하게 나는 느낌인데, 곡에서 여린 부분이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강약이나 질감 등을 신경 쓰면 곡이 입체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논문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의 공감’과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에 성공한 것 같다. 10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10대 중 한 사람인 나의 삶, 나의 상태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곡에 담았는데, 10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연령층까지도 노래에 크게 공감 해주셨다. 나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현재를 생각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 사실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을 떠올리거나 현재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논문의 목표를 잘 실현한 것 같다.

‘포크음악’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곡을 썼다면 힘들었을 것 같았다. 다행히도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찾게 되어 공부와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포크음악을 떠올리면 주로 사회비판적인 노래들을 생각하고는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낭만주의적 포크음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고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야기’를 곡에 담아낸 것 자체가 나 스스로 굉장히 용기 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고, ‘노래’가 이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 같다. 다들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이 노래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 것을 쓰다듬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감동스러웠다.

‘포크’라는 장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멜로디나 코드, 곡의 진행보다는 시적이고 추상적, 은유적 표현들을 사용해 가사의 비중을 높였다. 포크의 장르적 특성 때문인지, 내 진심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와 이야기가 굉장히 잘 전달되고 와 닿았던 것 같아 기쁘다. 본 논문의 목적 또한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쓰면서 마주했던 한계는 음악적인 부분이였다. 기존의 포크음악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고,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려다 보니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

히 우왕좌왕 했던 것 같다. 만들 장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장르에 맞게 곡을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또, 가사를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사월님께서 평가 해주셨듯, 알고 있는 코드와 기타 주법이 많지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코드로만 곡이 진행되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에 후회는 없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갈고 닦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 3. 논문을 마치며

드디어 논문이 끝났다. 처음 계획서를 쓰기 시작할 때 나 스스로의 목표가 있었다. '재밌게만 쓰자!' 하는 것이었는데, 입 밖으로 꺼내니 다들 비웃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정말 쉬운 게 아니었다. 비웃을 만도 했다. 어찌됐건 지금 내가 엄청난 도전을 했으며,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스럽다. 재밌게 쓰자는 목표를 정말 이루게 된 것 같아 스스로도 뿌듯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고 집중해본 적이 없다. 번덕도 심하고 쫓대가 없어 항상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논문을 통해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나의 결함이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항상 들추고 싶지 않아 했고, 꺼내기 또한 힘들어했다. 앞의 본문의 네 곡 설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두 나의 성장과 심정, 감정이 담겨 있는 음악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스스로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다. 혼자서도 이 상처를 어떻게 덮고 일어설 것이고, 나에게 대해 얼마만큼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과감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곡을 풀어냈던 것 같고, 사월님께서 지적하신 '과감함'을 이루지 못했다. 곡을 쓰면서도 혼자 나약해지기도 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 수자쌤과 논문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약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논문을 쓰다 보니 나를 표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음악과 자기표현에 대한 중요성 또한 느끼게 되었다.

논문을 쓰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보고 싶어'라는 곡 자체가 사실 지금의 엄마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언제나 회피하고 싶은 주제였다. 지금껏 엄마 앞에서 친엄마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해서는 안 되



는 이야기라고 혼자 판단하고 생각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인데, 내 한마디에 실망하고, 아파하실까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도 숨기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엄마와 통화하면서 어렵게 꺼내게 되었다. ‘서운해하실까’,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스스로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말을 꺼낸 순간 공중으로 흩어졌다. 전화기 너머로 정말 진심으로 나를 격려해주시고, 나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때껏 아파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정말 진심으로 엄마와 가족이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느꼈던 것 같다. 항상 못나고 어린 딸이어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제 내가 10년 가까이 아파했던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렸다. 이제는 더 단단해졌으니 아파한 시간들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 했다.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과 논문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

논문 자체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곡이든, 본문이든 정말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다 내 욕심인 것 같다. 하지만 도전하고 시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곡 만들고 부르면서 살고 싶다.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느끼는 것도 많고, 노력하고 얻는 것도 더 많을 거라는 거. 그리고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만 다잡으면, 자신을 잘 다독이면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정말 받고 싶었던 나의 우상 사월님의 곡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했다. 해주신 피드백 잘 살려서 나중에 음원 형태로 만들어보고 싶다. 통기타와 보컬의 기술적인 면도 많이 연습하고 다듬어야겠다.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정말 논문이 끝났다. 논문을 쓰면서 더 오른 음악에 대한 흥미와 가사 쓰는 것을 더 연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싶다. 수고 많았어, 주현아. 많이 성장했다고 믿는다. 기죽지 말고! 그만 짜고! 앞으로도 수고하자! 사랑한다.

## <감사의 글 - Thanks To♥>

제가 땡스투를 쓰다니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영원히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일단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릴 때 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철없게 굴 때,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마다 따끔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ㅎㅎ 그 말들마저도 학교에선 너무 그립고 듣고 싶습니다. 항상 보고 싶어요ㅜㅜ 논문 때문에 많이 나약해졌을 때도 따뜻하게 위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 논문 쓴다고 힘내라고 매일 밤 열심히 카톡 해주는 우리 착한 똥똥이 밍!!! 유민아 사랑해♡

언제나 토닥토닥 다독여주고 응원해준 울 다은이 언니, 볼 때마다 파이팅 외쳐주고 좋은 조언 많이 해줬던 우리 민정언니!

공연 후에 예쁜 말들 가득한 편지 써 준 우리 희! 언니야 힘내라면서 과자 던져주고 간 조은이, 예쁜 유경언니♡, 톡톡 거리면서도 좋은 말 많이 해준 우리 정민언니! 좋은 말, 좋은 조언 많이 해준 강 오빠, 논문 끝나면 언제든 찾아오라는 우리 멋진 선배 수정언니, 칭얼대면 받아주고 진심으로 내 이야기 들어준 우리 예현언니, 공연보고 극찬해준 우리 어진오빠!! 논문 파일 보내주고, 바쁜 시간 쪼개서 녹음하는 법이랑 팁 알려준 한결오빠!! 녹음을 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도움 엄청될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어ㅜㅜ 그리고 나의 정말 정말 소중한 아가들♡ 모두모두 너무 수고했고 사랑한다!

찾아갈 때마다 좋은 말씀, 좋은 조언해주신! 친절히 알려주시고, 피드백 해주신! 정호쌤, 민혜쌤, 수진쌤, 선호쌤, 은정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음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자쌤!! 벌써 선생님과 함께 시작한 논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툭툭대고 갑자기 눈물을 쏟더라도 “으이구!”하시며 등 한 대 때려주시고, 그럴 때마다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쫓대 없는 제가 조금이라도 중심이 잡힐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ㅜㅜ 선생님을 만나 참 행복해요♥ 앞으로는 찢찢 찢지 않는 씩씩한 주현이가 되어보겠습니다.

모두모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참고 문헌>

- 강 현(2015),『전복과 반전의 순간 1 (강현이 주목한 음악사의 역사적 장면들)』, 파주: 돌베개.
- 나인화(2017),『밥 딜런 유튜브로 여행하는 안내서』, 세종: 라이프하우스.
- 박애경(2000),『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책세상.
- 송방송(2012),『한겨레음악대사전』, 파주: 보고서.
- 이민희(2013),『왜 그 이야기는 음악이 되었을까』, 서울: 팜파스.
- 정강현(2013),『당신이 들리는 순간』, 서울: 자음과 모음.
- 강민규(2013),「한대수부터 악동뮤지션까지의 흐름으로 본 한국 포크음악 생명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라(2016),「70년대 청년문화와 90년대 신세대문화 비교 연구 : 문화주도층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순(2013),「한국 민중가요의 전개와 대중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한성(2008),「1960~70년대 한국포크음악 변천사에 대한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기영(2003),「이식 그리고 독립 : 한국 모던포크 음악의 성립과정(1968년~1975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방종서(2009),「한국 포크 음악의 특징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상봉(2011),「모던포크음악이 80년대 한국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취재와 인터뷰

사전 인터뷰 : 민중음악 싱어송라이터 이형주

### 영상 및 사진

밥 딜런 전기 영화 『아임 낫 데어(I'm Not There, 2007)』 감상

### 참고사이트

곡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까요? [101랩레이블], 네이버 블로그, 2018. 10. 14.

([https://m.blog.naver.com/lab\\_vocal/221362262715](https://m.blog.naver.com/lab_vocal/2213622627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3, [포크송],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영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872](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872))

이진섭, 2014. 포크 음악 [Folk Music] - 통기타로 노래한 저항 에너지 (팝음악),

2018.5.7.(<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145&cid=59002&categoryId=59002>)

위키백과, 2018. 5. 6, <포크 음악>,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D%81%AC\\_%EC%9D%8C%EC%95%8](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D%81%AC_%EC%9D%8C%EC%95%8))

### 방문 및 탐방

포크 아티스트의 공연: 김사월 톤 스튜디오 라이브 (5/26 토)

대전 책방 '삼요소' 김사월 공연 (8/18 토)

## <부록>

### 1. 작품일지

2018. 4. 9. 월

오늘은 논문계획서를 썼다. 이제 진짜 논문을 시작한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 사회문제와 포크음악. 이 두 가지로 윤곽은 잡았지만, 계획서를 쓰기 시작하니까 안대를 끼고 더듬거리는 것 같이 막막하기만 하다. 좀 더 세부화 시키고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말이다. 일단은 병곤 쌤이 읽어보라고 주신 교과서를 한번 정독해야겠다. 너무 무지한 상태라 무엇을 내가 느끼는 사회적 문제라 지칭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가사를 먼저 끄적여 보라고 하셨는데 불안해하지만 말고 3일 정도에 한 편씩 가사를 적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잘 알수록 가사 적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말이다. 일단 가사를 끄적이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며 가사에 살을 붙여야겠다. 너무 오랜만에 쓰는 글이기에 많이 어색할 것 같아 꾸준히 무언가 쓰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다. 앞으로 열심히 할 거라 믿는다!! 파이팅!

2018. 4. 10 화. 11:00

오늘은 논문을 위해 마땅히 한 것이 없다. 풀강에다가 묵학에는 기지개, 노래방 청소와 모니터 조립에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 바빠 죽는 줄 알았다. 그 와중에도 자꾸만 생각나는 논문은 내게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자리했다. 도대체 어떤 사회문제를 다룰 것인가. 굳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에 문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외로워서 시작한 감정 없는 연애라던가, 상부가 시키는 일에 옳고 그름을 생각지도 않고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던가. 뭔가 사회적 이슈를 따라갔을 때 정호쌤이 우려하셨던 점<sup>16)</sup>들이 나타날 것만 같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지는 내일 고민해야겠다. 졸려죽겠다.....zzZ

2018. 4. 11. 수

수자쌤과 논문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각이 많아 복잡하다. 아무래도 글로 적는 것 밖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오늘은 너무 졸리니 내일 다시 하는 걸로!

2018. 4. 15. 일. AM4:14

가정학습이다. 집에 왔고, 할머니가 오시고 외삼촌, 외숙모도 오셔서 논문 생각을 잠시 미뤄두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불안한 마음에 지금껏 잠을 못자고 있다. 논문 숙제가 오늘 12시까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논문계획서를 쓰기전에 '포크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았다. 루시드 폴의 '평범한 사람'을 들으며 나도 이런 노래를 작곡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어떤 것을 주제로 잡던 간에 작곡에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는 것 같다. 4.3에 관련된 설민석의 강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작정 기타를 잡고서 흥얼거리니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다. 3가지 주제를 다루고, 3곡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목표인데, 또 막상 마음이 가는 사회문제를 고르자니 세 가지 주제에 통일성이 있어야할 것 같다. 굳이 사회문제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의 문제점이

16)'조두순 사건' 담은 알리-나영이 사건, 네티즌 반응은?', 이투데이, 한옥주 기자, 2011년 12월 15일 기사, 2018년 10월 17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4101&idxno=518576>)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떠한 사건의 원인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도의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을 추려서, 굳이 그 사건을 다루는 내용의 곡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의 원인에서 무언가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일단은 계획서부터 써야겠다. 으아아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할까.

2018. 04. 15. 일 10:57

굳이 사회문제여야 하는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사회문제의 폭은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물음들 속에 대담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벌써 언 2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장 오늘 12시가 계획서 제출이고, 나는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다. 답답하고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다. 사실 여러 가지 곡을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토대로 만들고자 했지만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일까. 스펙트럼이 너무도 넓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학교로 범위를 좁혀, 책 한권을 통해 내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창가의 토토”이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태껏 못읽어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작품을 읽고 분석하여 지금의 학교와 비교하는, 내가 바라는 학교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싶다. 책 한 권을 분석하고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다. 계획서는 어째야 할까. 일단은 지금까지 한 계획서를 올려야겠다... 주제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 04. 20. 금

4.19 행사준비와 수업들로 바빴던 며칠 간 참 고민이 많았다. 학교 철학을 과연 내가 흥미를 가지면서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논문 계획서를 읽은 내 친구들도 주제를 바꾸지 말고 진행해보라고 조언해주었고, 나도 왠지 고민하던 주제를 날리기엔 아까워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다. 논문 목차를 쓰고, 참고문헌을 써보니 왠지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은 잡히는 느낌이다. 수자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왠지 마음이 놓였다. 역시 고민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 교정 받은 계획서를 고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오늘 수자썸을 만나는 바람에 오늘 들으려고 했던 논문 수업을 놓쳤다. 아쉽지만 일요일에 듣고 참고문헌을 쓰는 수 밖에. 빨리 교정해야지. 아, 규리가 내 계획서를 모르고 들고 가서 밤 10시에 혼자 온 학교를 뒤지고, 기숙사까지 올라갔다 왔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2018. 04. 22. 일 2:29

와... 벌써 새벽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어제 계획서를 쓰느라 굉장히 늦게 잤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결국 꾸역꾸역 학교에 가 전산실에서 계획서를 수정했다. 이정도면 됐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하진언니가 파스타 먹고 싶대서 나도 기분전환 할겸 문형언니, 영경언니, 하진언니랑 파스타 먹고 왔다. 언니들이랑 그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전산실에서 애들이 미친듯이 ppt를 만들고 있었다. 아니... ppt를 왜 만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정호썸께서 만들라고 하셨단다. 처음엔 안한다고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칭얼대다가 별에 별짓을 다하고 나서야 나는 내 운명과 마주했다. 그렇다. 결국 나는 계획서 수정과 ppt 제작을 해야했던 것이다. 집에 들어와서 딱 8시 9분에 자리에 앉아 ppt를 만들기 시작했다. 끝난 시각은 오전 2시 15분. 6시간 6분에 걸쳐 만든 ppt는 역시 구리다... ppt 잘만들고 싶어졌다. 뭔가, 떨리지는 않는데 부담된다. 계획서 발표에서 엄청 까일 것 같다. 아니, 까이려고 발표하러 가는 건

데.. 거의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평가받는다니 너무 무섭다.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기분이다.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의 5개월 반이나 몰두해야 한다는 게 신기하다.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재미있게 써야지. 이거 언제까지 가나 보자.

2018. 04. 25. 수.

오늘은 계획서 발표를 했다. 나는 안 떨고 있는줄 알았는데 엄청 떨었나보다. 발표하고 일어서는데 뱃근육이 엄청 당겨서 고생했다. 포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아직 내가 많이 부족 하구나 느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승택오빠가 이야기 해준 신주현 음악회 너무 좋은 것 같다. 가을축제 때 발표하기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라이브 하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2018. 05. 08. 화. 11:42

가정학습이다. 집에 온지 이틀이 지났고, 나는 학교에 하드를 두고왔다... 너무 바보 같다. 논문일지 못 올린 것들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두고 왔다. 계속 백업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구나 싶다.

논문일지를 일주일간 쓰지 않았다. 많이 밀렸다. 아니 사실 한 게 없어서 밀릴 것도 없긴한데 손을 놓고 있던 내 자신에게 많은 실망을 한 탓에 어제 오늘 열심히 본문을 쓰고 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목차의 1.포크의 정의(트래디셔널 포크, 컨템포러리 포크)를 다 채우긴 했다. 하루 반을 논문에 매진해서 썼는데도 분량은 한 장 반. 여러 학위논문들과 서적들을 들추는 중인데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많이 어렵다. 분명 복붙한 것이 아는데 단어나 표현들이 어렵다. 웬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일단 무언가 하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쓰고 있다. 퇴고를 많이 해야겠다.

본문도 본문인데 내 곡들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된 것일까... 계속 꾸준히 기타연습이나 다른 곡 카피를 하면서 감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포크송의 특성 자체가 곡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가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사를 계속 적어야 하는데 쉽사리 소재와 가사가 떠오르지를 않는다. 계속 책 읽고 관련 방송들도 챙겨봐야겠다. 기사도 올라오는거 계속 보고. 곡에 쓰면 좋을 코드진행들을 생각해보는 중이다. 일단 그 생각 전에 가사를 꾸준히 적어야하는데...

가정학습이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학교에서는 일에 치여서 논문 생각이 덜나는데 집에 들어온 순간 논문 걱정이 엄습해온다. 그래도 집에서 계속 책들 읽고 기초 화성학 공부하면서 지내야겠다.

경상대노래패와 컨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최신 정보가 나오지를 않는다. 답답하다. 으어어... 놀지 말자. 나태해지지 말자. 할 수 있다... 화이팅.....

2018. 05. 15. 화

오늘은 은정쌤께서 책을 추천해주셨다.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권정생의 '빌뱅이 언덕', '우리들의 하느님' 그리고 괴셀 투르미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정도가 되겠는데, 차근차근 읽어가야겠다.

2018. 05. 16. 수. 11:29

오늘은 거의 2주? 전에 은지쌤이 빌려주신 루시드폴의 [모든 삶은, 작고 크다]를 읽었다. 루시드폴의 말 중 음악을 만드는 것은 마치 산책로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어느 때에 꽃과 개구리를 등장시킬지, 길은 비탈진 길인지 아니면 평평한 길인지와 같은 산책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곡을 쓰신다고 한다. 나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고 그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으로 곡을 만들고 가사를 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배운 것 같다.

도서관에서 어제 은정쌤이 추천해주신 책들을 모두 찾아봤는데, 도서관에 있는 것은 '빌뱅이 언덕' 밖에 없었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을 얼른 읽어보고 싶은데 조만간 주문해야겠다. 내일은 꼭 '뻘뻘한 작곡법'을 읽어야겠다.

2018. 05. 26. 토

-탐방일지

오늘은 포크 아티스트 '김사월'님의 '톤 스튜디오 라이브'로 탐방을 다녀왔다. 인터뷰를 하거나 할 기회는 없었지만, 공연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논문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담담히 풀어내는 가사와 잔잔한 기타선율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오늘 새로웠던 건 헤드폰을 끼고 공연을 보았다는 것이다. 사월님도 굉장히 신기해하셨다. 앉는 위치와 무관하게 60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운드, 노래, 숨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톤 스튜디오는 국내최초로 고음질 녹음을 중심으로 현장에 일반인을 초대해 뮤지션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의 라이브 공연을 주최하는 곳이다.

처음으로 밴드셋으로 공연을 하신 건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다. 너무 행복했다ㅎ 베이스와 드럼, 키보드, 코러스가 추가된 사월님 노래는 진짜 대박

이었다. 코앞에서 봤다. 시야가 너무 좋았다. 가까운 시야 덕분인지 무대에서 한 곡 한 곡 부르실 때마다 내 눈을 맞추고 노래해주셔서 심장이 떨어질 뻔 했다ㅠㅠ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사월님과 짧게 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라디오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중딩인걸 기억해주셨다. 내가 쓰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포크 곡을 만들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어떤 가사로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셨다. 나 완전 성덕이다..ㅠ 논문 평가를 부탁드렸는데, 평가는 못해주신다고 듣고 느낀 점은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탐방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니 라이브를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지 어렵듯이 알 것 같았다. 김사월님께서 관객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맞춰주시며 노래를 부르니 더 진정성 있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마치 내가 노래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좋은 팁도 하나 얻어가는 것 같다. 신주현 음악회에 참고해야겠다. 사실은 자신이 없다ㅋㅋ

김사월님께 들려드릴 노래니까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2018. 07. 06. 금

언 한 달 반 만에 쓰는 일지다. 무빙으로 제주도과 타대안을 다녀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제주도와 타대안은 핑계겠지만.. 가정학습에는 기타만 잡고 있었다. 곡을 작곡하려고 잡고만 있었다. 계속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치려고 한다.. 정작 급한 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태해지는 나를 보니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 안되는데..

오늘은 정호쌤께서 논문 중간점검을 해주셨다. 원래는 어제 모였어야 하는 건데 등산 갔다가 뻘는 바람에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도 정리해본 적이 없는데 모여서 정리를 하니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다.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본문을 썼다. 포크의 정의 파트를 채웠고, 지금은 다른 학위논문들을 통해 한국 포크의 역사를 공부하고 채워가려는 중이다. 그리고, 한 곡의 곡을 쓰고 있다. 지금 만드는 곡은 현대사회의 우울에 대한 곡이다.

또, 이형주님과 이메일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가사를 쓰기 위해 지금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예멘 난민의 이야기이다. 제주도로 무빙을 다녀오면서 제주의 아픔을 배웠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제주가 어째서 예멘 난민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내가 느낀 것에 대한 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다. 너무 어렵다. 가사 쓰는 게 특히 어렵다.

2018. 07. 07. 토.

오늘은 소성리 사드 반대 집회에 다녀왔다. 8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 생각보다 규모가 많이 컸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났다. 강정마을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들어온 해군기지와 사드. 이 모든 것이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깨뜨리고, 불안을 부추겼다는 것에서 화가 난다. 국가안보가 대체 무엇이길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안보가 아니던가. 대체 무엇이 위협적인 상황인 것일까. 이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벗어났다. 북미회담, 남북회담이 펼쳐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체 왜 사드와 해군기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안보를 핑계로 평화롭던 마을을 가만두지 않는 것은 옳을까. 안보를 목적으로 들인 것이 정말일까. 승미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다. 미국의 무기 산업들과 군사력을 위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미국에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평화의 길 일까.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노와 복잡함을 느꼈다. 조금의 희망도 느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연대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이 감정, 이 느낌, 이 생각 그대로 곡에 담고 싶다.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2018. 07. 08. 일

난민 소모임에 들어갔다. 정말 얼떨결에 들어갔다. 난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공부하는 중이었던 것은 맞다..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도서관에서 난민을 다룬 한겨레와 시사in 잡지를 읽고 와서 난민 관련 영화를 찾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호쌤과 예현언니가 나를 영입했다. 2학기 때부터 제대로 된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 전까지 난민에 대한 내 생각을 담은 곡을 만들고 싶어졌다.

2018. 07. 11. 수.

5학년 언니, 오빠들의 개인무빙 발표가 있었다. 동시에 ‘섬’이라는 책이 왔다. ‘섬’은 아민 그레더라는 스위스 출신 작가가 쓴 책이다. 평화롭던 섬에 낯선 남자가 등장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담은 그림책이다. 근거없는 공포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남자를 내쫓고, 섬 전체에 커다란 장벽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를 보며 난민이 떠올랐다. 학교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문한 책이다. 논문과도 연결될 것 같다. 처음 알게된 것은 우다다 학교에서다. 이 책을 홍보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2학기 초에 하려고 기획 중이다. 그러기 위해서 카드뉴스를 제작 중이다. 팬잡은 활동인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으로 노래를 쓰고 싶어졌다.

2018. 07. 12. 목.

논문 제목을 바꾸어 볼까 한다. ‘사회의 이면’. 어쩐지 세상의 뒷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는 것만 같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의 부조리와 폭력들은 결코 ‘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세상의 밝고 좋은 면들의 옆에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양면적인 것.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이면 ’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주도 총평에서도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국가의 폭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포크음악 작곡하기”가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다.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형주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디서 활동하시고 어떤 노래를 하시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일 쯤 질문을 짜야겠다.

2018. 07. 13. 금.

곡을 만들었다!!!!!!! 계속 수정할 것 같다. 곡 이름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놓았고, 1절까지는 막힘없이 노래가 진행된다. 2절까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계속 작곡 해봐야겠다.

2018. 07. 17. 화

방학을 하고 집에 오니 퍼질러졌다. 이틀 간 맥을 못 추리다가 이제야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일단 이형주님과 인터뷰 질문을 대강 짜봤다. 내가 연구논문이 아니고, 작품논문이라 무엇을 인터뷰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많이 헤맸다. 계속 수정되고 덧붙일 것 같은데 대략 7가지 질문이 나왔다. 주로 하고 계신 일과 직업에 대한 질문인데, 관련된 직업의 이야기와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짰다. 음.. 형주님과 인터뷰 약속을 잡지도 않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급히 짜 본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순서가 맞는 건가 싶다..ㅋㅋ

1. 자기소개와 하고 계신 일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노래를 하고 싶다고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3. 하고 계신 노래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장르 또는 노래가 담는 메시지)
4. 민중음악의 정의? 옛날의 민중가요와 지금 하고 계신 민중음악이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5. 포크와 블루스의 차이?
5. 최근에 sns를 통해 계속 궁중족발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활동가로서, 궁중족발은 어떤 곳이며 왜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6. 성주 소성리의 사드, 궁중족발 등 사회의 부조리와 아픔이 있는 곳에 많이 다니시면서 공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신 곳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7. 민중음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8. 반대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2018. 07. 17. 수

일단 오늘은 내가 쓰고 싶은 주제인 '궁중족발 사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공부를 했다. 기사를 계속해서 읽고 있다. 너무 극과 극으로 반응이 나뉜다. 자본과 법이 문제다.. 궁중족발에 대한 곡 설명을 열심히 쓰고 있다.

이형주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터뷰가 처음이고, 외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 너무 떨고 쫓아서 한글자 씩 입력하는데도 예의 없게 느끼실까.. 하면서 별 고민을 다 했다 ㅋㅋㅋ 그래도 당연히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8월 11일에 양재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설렌다! 궁중족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뉴스 기사를 보니 강제 집행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신 것 같은데,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2018. 07. 22. 일

제주도에 왔다. 엄마 제자 분께 기타를 빌렸다. 이제 멜로디와 코드를 탄 두 곡을 9일 간 계속 다듬어야 한다.

2018. 07. 30. 월

음... 제주도 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했다. 정말이다. 한 곡은 날려버렸고, 한 곡이 남았다. 한 곡은 멜로디와 코드 다 땀다. 곡 구성도 정했다. 이제 가사만 쓰면 한 곡은 일단 끝이다. 하지만 가사가 정말 끝내 나오지 않는다.. 힘이 든다.

2018. 07. 31. 화

오늘은 긴가민가한 하루다. 사실 작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음... 정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다. 복잡하다. 사회 비판 노래(?)를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크다. 작사를 해도 너무 조심스럽고 막막하다. 애초에 내가 그런 상황들을 겪지도, 가하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서, 먼발치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곡을 쓰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한계에 자꾸만 부딪힌다. 내가 쓴 노래가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그렇다면 매우 단편적이고,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그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내가 멀리서 본 입장으로 곡을 썼을 때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마찰과 오해의 목적으로 쓰는 곡이 아닌데도 상황이 난처해지거나 설부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싶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곡이 나와서 기뻐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사를 계속 지어가면서 불러보아도 진정성이 없다.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다.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억지로 생각을 쥐어짜고, 없는 것들을 모아서 어정쩡한 결과물이 되어서 실망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내가 싸메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작년에 비해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은 작년의 나 같다. 그래서 나는 아직 우울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내 상태를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청산의 기회가 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음악은, 노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작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공감할 수 있는, 와 닿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나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서로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2018. 08. 01. 수

수자쌤과 통화를 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읽어내는 거니까, 너무 조심스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 다른 것들을 곡에 담더라도 한 곡은 사회문제에 관련된 곡으로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을 수자쌤께 전하니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다. 주제와 많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하셨다.

어제부터 기타학원에 가기 시작했다. 논문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기타레슨 말고 화성학 알려주신다고 하셨다.. 분명 기타학원인데 좋은 선생님께서 화성학을 배우게 되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 사실 화성학 안배우고 넘기려고 했었다. 계산적인 것이 더 복잡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화성학도 배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늘은 관계조에 대해 배웠다. 여전히 어렵지만.. 대충 이해는 했다. 한 조성과 공통점을 많이 가져서 서로가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조를 말한다고 한다. 이 조는 코드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을 풀면 이해 확실히 될 것 같다. 내가 이론을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항상 나는 멜로디와 코드를 그냥 흥얼거리다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관계조를 배우니까 이렇게 뭣도 모르고 노래를 만드는데도 규칙과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고, 신기했다. 이걸 배우면 더 응용하고 다음 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일지를 쓰는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한번 씩 학원에 가는데 음악이론책 다음주 월요일까지 한권 다 읽고 문제 다 풀어 와야 한다. 두께가 어마무시하다.. 속성으로 가르쳐주신다 하여서 속도를 따라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밥맛은 좋

다.. 진짜다.. 하여튼 가사 쓰고 곡 쓰고 하려면 일단 화성학 배우면서 해야겠다.

2018. 08. 02. 목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갔다 왔다. 가서 계속 음악 이론 책을 보며 악보 기보와, 곡의 진행에 관련된 공부를 진행 중이다. 음표, 쉼표들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랐다. 잘못된 정보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기초적인 것도 안배우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매일 헛갈리는 거 계속 읽어야겠다. 책에 수록된 문제들 열심히 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곡 구성을 어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곡을 쓸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공부방 가서 3시간 앉아있느라 논문 생각이 정지되었는데, 본문 매일 조금씩 써야겠다. 82일 남았다. 이제 슬슬 무서워진다.. 내일 친구랑 서점 가기로 했는데.. 책 읽는 친구 옆에서 열심히 가사 쓰고 문제 풀어야겠다. 파이팅.. 빠샤! 아 참, 결과물은 아마 영상이 될 것 같다. 녹음은 내 믹싱 실력으로 턱도 없어서..ㅠ 아마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공연도 할 것이다.

일단은 장소와, 카메라, 앰프의 지원은 기타학원에서 해주시기로 약속했다. 너무 다행이다.. 전문가 평가는 이 영상으로 받고, 결과물은 공연이 될 것 같다. 곡 구상만 하자. 제발..

2018. 08. 03. 금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을 주제로 할까 한탄하듯 논문 걱정을 늘어놓았는데 친구는 나를 보며 웃기 다는 듯이 말했다.

“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현재 너의 고민들, 지금 나열한 것들 현재 너의 상태잖아. 과거, 현재, 미래, 소망, 정도로 나누어서 곡을 써보는 건 어때?”

그 때 나는 번뜩였다.. 맞다. 그러면 되겠다 싶었다. 내가 지금껏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다. 침체되어있었던 작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침체된 시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과거를 어떻게 품고 가야 할까? 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생기면서 나온 결론은 “수필”이었다. 곡으로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내 생각과 감정을 담기에 무리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노래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시적이며,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힘들다. 때문에 둘을 합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글쓰기 시작해야겠다.

2018. 08. 06. 월.

나의 과거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편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글 쓰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2018. 08. 08. 수.

다른 한 곡의 코드를 대충 짰다. Verse(1절)에 들어갈 네 마디 정도의 멜로디가 나왔다. 하지만 코드의 진행이 끝까지 반복되니 지루하다.. 많이 지루하다. 다른 곡은 7개의 코드를 썼는데, 이 곡은 4개의 코드 밖에 안 되어서 특히 더 지루할 것만 같다. 뭐든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기타학원에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오늘 레슨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시간이 아깝다.

2018. 08. 09. 목

이번 주 토요일, 형주님과 만나서 진행하기로 했던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이메일 인터뷰를 부탁드렸다. 흔쾌히 해주신다고 했고,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하셨다. 인터뷰 질문을 받은 메일로 전송해드렸다!

2018. 08. 10. 금.

어제, 오늘 그저께 만든 곡 도입부를 이을 멜로디와 코드를 생각해냈다. 드디어 두 번째 곡이 진행 되어가고 있다. 기쁘다. 1절과 후렴까지는 완료했다. 조금 만족스럽다.

난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어색해  
늘상 걷는 거리와도 아직 서먹해  
낮선 도시에서 매일을 살고 있어

내겐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  
오늘의 공기가 어제와는 달라서  
이젠 숨을 쉴 수 있어

새카만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 뜨거운 잔향만이 나를 감싸네  
남은 건 새벽녘 별들의 작은 속삭임 뿐 인걸

이게 그 노래의 1절과 후렴의 가사이다. 영상에 담아 여러 친구들과 선배에게 보내서 느낀 점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괜찮은 것 같다고 평가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규리는 반주가 똑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소현이는 내 가사에 대한 지적을 해주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어색하다는 표현은 마치 이전부터 일상이 새로웠다는 것 같은데 왜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어야?” 이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우리 동네 친구는 “이젠 숨을 쉴 수 있어”라는 구절이 다른 구절에 비해 공백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고, “뜨거운 잔향만이”라는 부분의 멜로디가 같아 예쁜 표현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의견들을 반영해 2절과 곡 마무리를 해야겠다.. 작곡은 쉬운 것인 줄만 알았는데.. 계속 넘어야 할 벽들이 너무나도 많다.

앞으로 조금 더 파이팅 하자아아!!! 신주현 할 수 있다!

2018. 08. 11. 토

오늘은 이때까지 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단 두 곡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 만든 곡은 가사를 입혀야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곡은 2절과 가사, 멜로디를 짜야한다. 제일 중요하다.. 시작한 두 곡 마무리.. 주변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보완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8편의 글을 시작했고(마무리를 지은 것은 단 두 편뿐이다.), 조금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 같다.

본문은 대충 썼고, 나중에 작품이 나오면 계속 써나가야 할 것 같다. 인터뷰는 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일단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매일매일 적어도 4시간 씩은 해야겠다. 정말 시간이 아깝다..

2018. 08. 13. 월

오늘 기타학원에 갔다. 기타학원 선생님께 내가 만든 곡을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칭찬해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연주를 해본 적 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 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셨다. 잘했다고 칭찬해주셔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가사를 쓰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까 가사를 나중에 더 보내주시기로 하셨다.

2018. 08. 17. 금

내가 근 5일 동안 일지를 쓰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낙심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계속 기타를 들고 있는데도,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다. 오늘 괜히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냈는데, 그런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과 열등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님에도 나는 왠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다 보면 불행해짐을 아는데도 조금의 마음이 앞서서 내가 싫다.

정말 하루 종일 기타만 들고 있다. 계속 좋은 코드들을 찾아, 화성 진행을 찾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나온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었는데, 눈이 하루 종일 아프다ㅋㅋ 그래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던 이렇게 고민하고 부딪히는 것이 진짜 배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나를 안다. 내 우선순위 1등인 논문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해야겠다. 이젠 마음 툭툭 털고 신발 끈 꼭 묶어야겠다. 다음 주에 학원에서 세 곡을 녹화하기로 했는데, 4곡 만들어서 목표지에 도달하고 싶다. 두곡은 완성되었으니 반만 하면 된다! 아, 오늘 하루 종일 가사만 붙들고 있었더니 처음에 만들었던 곡을 완성했다!!! 가사 쓰는 것의 어려움이 많다. 가사 너무 어렵다. 짜증난다.. 그래도 아마추어와 작사, 작곡가를 비교하지 않을 테니 마음 가볍게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할 텐데 비판적인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도 파이팅! 고생하자...!

2018. 08. 17. 금

음, 하루에 논문일지 두 번이나 쓴다. 오늘은 두 곡의 가사와 구성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곡을 쓰기 시작했다. 쓰기 시작한지 2시간 만에 다 만들었다. 완전 신기했다. 이렇게 집중해서 내 이야기 내 노래를 만드니 너무 재미있다.

2018. 08. 18

- 탐방일지

오늘은 김사월님 공연을 보고 왔다. 탐방과 팬심의 경계가 모호하지만..ㅋㅋ 내가 만드는 것은 포크송이고, 내 곡들의 롤모델이 사월님이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녀왔다. 온 가족이 함께 갔는데 나만 따로 앉았다. 곡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역시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좋은 곡들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라이브를 할 때 배울 점을 몇 가지 생각하며 들었는데, 먼저 관중의 눈을 맞추며 공연하는 것이 가장 배우고 싶었다. 나는 항상 먼 산만 바라보며 했는데 아무래도 사월님께서는 많이 공연을 하시다보니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았다. 그 여유를 배우고 싶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하면 곡의 빠르기가 계속해서 빨라지는데, 사월님처럼 발로 박자를 세면서 노래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음향을 체크 할 때도 관객이 듣기 좋은지 아닌지를 확인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논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까먹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저번 공연에 무슨 옷 입고 갔는지도 기억하시고 정말 세세하게 나를 기억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곡을 평가해달라는 말에 당연히 해주시겠다고, 지금 보여달라고ㅋㅋㅋㅋ 그러셨다. 너무 유쾌하시다.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신박한 싸인은 처음이시라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씀해주셨다ㅠㅠ 정말 내가 너무도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께 내 노래를 평가 받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 막 부끄럽..다. 오늘 정말 최고였다. 사월님께 들려드릴 노래라고 생각하니 지금 만든 노래들이 부끄러워진다ㅠㅠ 앞으로도 파이팅 하자 주현아!!



2018. 08. 21. 화

3곡을 몇 달 동안 다 완성했고(정확히 말하자면 몇 주간 엄청 열심히 만들었다..), 오늘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곡을 다 들려드렸는데 칭찬폭탄 받았다.. 잘 만들었다고 해주셨다. 나는 사실 내 노래들을 들으면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슬퍼했는데, 비슷한 것 같지 않냐고 여쭙어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셨다. 들려드리는데 기타로 화음 넣어주셨다.. 그냥 기타 한 대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기분 좋게 들렸다. 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크닉,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주제를 연구해봐야겠다. 곡 한 곡에 들어있는 코드들이 다 반복이어서 단조롭고 재미없게 느껴 질까봐 걱정이다. 계속 기타만 잡고 방에만 있다. 정말 하루에 모든 시간을 곡 만드는데 쏟아붓는다. 더 열심히 하자! 아자아자!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아, 그리고 주제를 계속 고민 중이다. '나의 삶'이라는 타이틀만 계속 가져가는데, 좋지 않다.. 이 곡들을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수필에 관한 곡을

쓰는 것에서 역으로, 내 곡의 가사를 수필로 쓰는 작업을 할 것 같다. 곡의 가사가 굉장히 심오(?)하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냥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수필로 풀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내일부터 전문가 평가를 받기위한 녹화를 할 텐데, 걱정이다. 자꾸만 버벅 거리고 틀리는 부분이 많아서 더 연습을 해야 한다. 계속 연습하다보면 늘겠지 하고 생각한다. 이만 기타 잡으러 가야겠다.

2018. 08. 22. 수

오늘은 곡을 녹화하는 날이었다. 모든 게 마음처럼만 되면 참 좋으련만. 오늘 배탈이 난 상태로 학원에 갔다가 녹화 30분 만에 학원선생님께서 나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3곡 중 연습차원에서 2곡을 녹화했는데, 정말 몸이 따라가 주지 않았다. 배가 아프고, 옅힌 느낌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해서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내일 오늘 못한 것을 채워서 하자고 하셨다. 두 타임을 뛰는 내일이 너무 걱정된다. 내일이 걱정되는 이유는 솔릭이라는 태풍이 오기 때문이다.. 초속 40m/s라고 한다.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태풍이라 외출을 자제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참 화가 난다. 정말 학원에 안가면 안되는 상황인데, 신문연수와 입교를 3일 앞두고 내일도 못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나는 정말 속상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 하늘이 돕기를 바란다.

배가 아파 죽을 것 같다. 이 순간에도 속이 부글거린다. 미칠 것 같지만 내일 있을 녹화를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지금도 집에 온 2시간 동안 기타만 잡고 있었다. 눕기는 뭐하고 쉬고 싶지만 힘들어서 그냥 기타 들고 있다.

몇 달간 기타를 잡으며 느낀 것은 정말 재미있고, 즐겁다는 것이다. 노래를 정말 못한다. 기타 실력 또한 아직은 왕초보다. 하지만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게 나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큰 의미인 것 같다. 본문을 쓸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곡 만드는 것은 너무 재미있다. 정말 주제 선택 잘 한 것 같다.

오늘 정말 멋있고, 존경하는 분을 만나고 왔다. '앵클운' 이라는 카페에 윤삼촌이라 부르는 바리스타님이신데, 정말 깨어있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어른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내 주변에는 정말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반년 만에 만난 윤삼촌과 논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쓸 곡들과 수필들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든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라고.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들의 평가에 내가 휘둘릴 필요도, 무조건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나마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나의 창의력과 가능성을 짓누를 수 있다고 하셨다. 정말 마음가는대로 해도 괜찮다고. 평가받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라고. 사실 곡을 만들면서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단조롭고 재미없는 곡을 누가 들어주거나 할까. 정말 재능이 없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실은 기뻐다. 첫 발걸음에, 첫 시도에 곡을 3곡이나 만든 것 자체로 나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남들 평가 받을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움츠러드는 내 자신만 보이고, 더 잘해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나를 보았다. 사실 완벽한 것이란 없는 건데, 중3짜리 아마추어에게, 고작 살면서 5개의 곡도 채 못 만들어본 사람한테 루시드 폴이



나 유희열 같은 작곡가처럼 곡을 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다. 대체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음악은, 노래란,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 같은 것이다. 지금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의 노래 또한 그렇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음악을 듣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작곡가와 그 음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기도 하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논문으로 데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나는 포크라는 장르가 재미없게 들릴지도 모른다면 단정 짓고 깎아내렸던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잊고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노래를 만드는 일이 즐겁다. 나 스스로가 너무 만족한다. 나의 첫 작품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 논문이 끝난 후에도 나는 계속 곡을 만들고 싶어졌다. 조금의 흥미 가지고 시작했던 논문의 '작곡'이라는 주제가 이젠 열정으로 바뀌었다. 달리고 싶다. 경주마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2018. 08. 23. 목

오늘은 학원을 두 타임 뛰었다. 2시와 8시에 기타학원에 가서 녹화를 했다. 내 곡인 것은 맞지만 아직 기타 반주도 그렇고 음정도 그렇고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미숙해서 계속 틀린다. 공연 전까지 엄청 연습해야겠다. 조금씩 실수한 영상은 할 수 없이 틀린 그대로 써야겠다. 조금씩 틀리는 게 인간미 넘치지 않나.. 사실 녹음은 정말 최상의 목소리와 최상의 기타연주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녹화나 라이브가 녹음보다는 더 생생하고 좋은 것 같다. 있는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른 오후에 녹화할 때 보다 오후에 가서는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다. 목이 풀리니까 고음이 올라간다!! 가성을 써야할까 진성을 써야할까 고민했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진성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주현, 주현은 뭘 좋아해?" 이 질문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작곡하는 것이 재미있고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데, 남에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해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일단 내 실력이 좋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던 내 꿈을 기타선생님께 처음 말했다. 그래서 더욱 더 확신이 생겼고, 정말 진로에 대한 진심어린 조언들을 들었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더 내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커서 무엇을 하든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다. 더욱 더 확고해졌다.

2018. 08. 24. 금

오늘은 녹화 마지막 날이었다. 학교를 당장 내일 들어가고 심적으로 굉장히 신경 쓸 것이 많다니, 녹화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계속 틀리고, 고음은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기타쌤과 이야기 하고 학원 마지막 날을 마쳤다. 녹화 최종본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뿌듯하다. 이제 라이브 연습 열심히 하고, 수필을 써야겠다.

2018. 08. 26.

학교에 와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신문만 주구장창 했다. 수자쌤께 찾아가야하는데...

2018. 08. 27.

수자쌤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 만든 3곡을 들려드렸고, 작품은 괜찮다고 말씀해주셨다. 바뀐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절실하게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다. 사실 많이 간절했기에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턱대고 노래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었지만, 어떻게 묶어야 할지, 수필과 노래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 수자쌤께서 추천해주신 것은 수필을 영상에 넣어 내 노래와 함께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 한번 고민 해 봐야겠다. 정말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내 노래를 보이는 것이 마치 민낯을 들키는 것 같아 너무나도 부끄럽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이겨내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더 나아진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라이브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곡을 써야겠다.

2018. 08. 28.

오늘은 회의만 주구장창 해서 계획서를 조금 수정한 것 말고는 별다르게 하지 못했다. 내일 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슬슬 수필을 쓰기 시작해야한다. 정말 열심히 해야하는데 너무 바쁘다. 일단은 최대한 쓰다가 자야겠다.

2018. 08. 29

오늘 3교시에 수자쌤과의 면담을 했다.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했다. 수필을 쓰려고 하는데 수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도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덕래쌤을 찾아갔다. 덕래쌤께서 수필은 일기와 편지의 다음 단계라고 말씀해주셨다. 일기는 나 혼자 보라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든 상관없다. 편지는 한 사람만을 위해 쓰는 글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다음 단계인 수필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글이기 때문에 검열을 잘 해야 한다고 하셨다.

수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다. 소설과 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고 진솔해야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의 얼마만큼을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어렵다고 말하니까 그냥 정말 편하게 글짓기 대회 갔을 때처럼, 평소에 쓰는 글처럼,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글로 옮겨 적는 것도 수필이 될 수 있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책장을 돌아다니면서 글쓰기에 대한 책을 한권 추천해주셨다. “창의적 글쓰기”라는 책인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써야겠다. 일단 오늘의 목표는 글쓰기 책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식을 뽑아내는 것이다. 얼른 읽어야지.

2018. 08. 30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중이다. 코러스 부분은 스케치 해 놓았는데 가사가 문제다. 너무 힘들었던 작년에서 못 헤어 나와서인지 너무 괴로운 가사들만 나오고 있다.. 일단은 무언가라도 만든 데서 보람을 느낀다. 내일 더 열심히 나머지 부분들과 가사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2018. 08. 31

오늘은 민혜쌤을 만나러 갔다. 어제 민혜쌤께 내 곡들을 들려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통화중이셔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 들려드렸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안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곡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받았던 것은 멜로디였다. 곡에 여유가 없게끔 선율을 짜서 가사전달이 잘 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너무 한 마디에 많은 음들을 쪼개고 넣어서 듣기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지금 곡을 수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한 곡은 그렇게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두 번째로는 코드, 곡의 구성인데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다. 칭찬 받은 점은 가사를 잘 썼다는 것과 노래 자체가 괜찮다는 점이다.

음.. 그렇게 지적받은 바쁜 선율을 쓴 이유가 있었다. 자꾸 다른 곡들을 신경 쓰고 좋은 것들을 따오려고 하다 보니, 또 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 싶고, 비유적 요소들을 넣고 싶어 욕심을 부리다 보니 저절로 복잡한 멜로디가 탄생한 거였다. 나도 부르면서 참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바쁜 느낌이 들 것 같아 조금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 이 멜로디를 갈아엎는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곡을 쓰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에 쓸 곡을 민혜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들어보아야겠다.

아직 제목이 미정이라 곡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가사로 지칭할 수 밖에 없다. 곡들에서 피드백 받은 것을 몇 가지 적어보자면, '깜깜한 어둠은 하늘을 삼키고'라는 노래에서 코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셨고, 기타를 두드리면서 한마디, 혹은 두마디 정도 흘리고 코러스로 들어가라고 조언해주셨다. 그리고 브릿지 부분에서 '하지만 그 그림잔 악몽에 불과해 더는 날 해칠 수 없단 걸 알아' 부분의 가사를 줄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바꾼 가사는 '하지만 그 그림잔 악몽에 불과해 이제 난 이겨낼 수 있어'이다. 브릿지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임에도 약하고 힘없는 느낌이 들어 더 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저녁 먹고 바로 이 멜로디만 바꾼 것으로 적용해서 불러보았다.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목을 충분히 풀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사실 다른 곡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수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곡에서 참고해서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사실 수정하기 쉽지 않아 다음에 만들 곡은 조금 여유 있고 가사전달이 잘 되도록 유념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세세한 평가와 격려,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오늘도 정말 힘내서 논문 써야겠다. 좋은 힘이 많이 되었다.

수필도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2018. 09. 01. 토

오늘은 원스를 봤다.. 뭔가 자극과 영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봤다. 역시 여운이 남고, 음악들이 참 좋다. 외로움에 대한 곡을 쓰고 싶어졌다.

2018. 09. 07. 금

오늘은 논문 세미나를 했다. 나는 오늘 발표를 했다. 중간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는 발표였다. 주제를 바꾸게 되어서 많이 까일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하셔서 너무 다행이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확고하게 밀고 가는 주장이 있으면 보통 믿어준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행이다. 이제 주제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겼다. 그리고 왜 수필을 쓰는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왜 굳이 할 일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냥 말은 것만 제 시간 내에 하면 되는데 단순히 곡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필을 쓰는

것이라면 곡 설명으로 충분 할텐데 왜 굳이 수필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도 너무 공감하고, 왜 수필을 쓰겠다는 건지 나조차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생각을 좀 정리해봐야 겠다.

2018. 09. 08. 토

그래.. 결국 수필을 날렸다. 사실 왜 내가 쓰겠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뭔가를 더 해내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을까. 사실 날로 먹었다고 할까봐 무서웠다고 할까..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근데 오히려 마음만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곡 설명을 정말 열심히 잘 써보려 한다. 파이팅!!!!!!!!!!

2018. 09. 09. 일

오늘은 불안한 마음에 앞으로 최종발표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일별 계획을 짜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 평가를 하려면 녹음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녹음 계획까지도 넣었다. 믹싱이 된 음악이 아니라 일단 데모 형태로 녹음을 하려고 한다! 나의 이상 사월님처럼.. ㅋㅋ 데모 음원이기 때문에 부담감 갖지 않고 잘 만들고 싶다. 녹음을 한결오빠, 아니면 한울오빠한테 배우고 싶다.. 배워야겠다. 언젠가 물어봐야지.. 화이팅하자!!

2018. 09. 11. 화

오늘은 결국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있어도 안 나오던 마지막 곡을 결국 만들었다. 다른 곡들과는 다르게 곡을 만들면서 바로 제목이 붙여졌다. 제목은 '타임캡슐'이고, G# - Cm7 - A#m7 - D#7(9)코드가 반복이다. 브릿지 부분 추가하고 싶은데 아직 1절과 후렴까지 밖에 안 만들어져서 내일 이어서 계속 만들어야겠다.

오늘 수자쌤께서 당직이셔서 함께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계획서 수정과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 본문과 목차에 대해서 면담(?)을 했는데 본문을 조금 더 내 언어로 바꾸고, 계속 수정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밑줄과 코멘트 달아주시면서 변경하고, 덧붙여야 할 부분을 함께 고민해주셨다. 수자쌤, 항상 감사합니다:)

2018. 09. 12. 수

오늘 최종계획서 제출했다!!!! 제출하고 밥 먹으면서까지 타임캡슐만 작곡하다가 결국 2절 가사와 브릿지의 코드가 나왔다. 음.. 열심히 하니까 나오는 게 있다! 정말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2018. 09. 14. 금

오늘 내 기타 스트랩이 왔다!!! 가을축제 때 공연하려면 꼭 필요해서 며칠 전에 주문했는데 되게 빨리 와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서서 스트랩 끼고 기타를 쳤다. 오늘은 또, 논문 세미나가 있었다. 수업시간에 10분 정도 지각했는데, 사실은 은탕쌤이랑 정자에 가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오느라 늦었다. 내가 만든 마지막 곡도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논문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의 나와는 많이 달라서 나 스스로가 많이 낫설었다. 작년에 맨날 힘들다고 아프다고 찡찡대던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재미

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있는 걸 보니 확실히 '성장했구나.' 하고 느낀다. 작년에 나를 일으켜 주었던 소중한 분한테 지금 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논문세미나에서는 정말 중간발표를 위한 피드백을 받았다. 가사 첨부 하는 거!! 잊지 말기..

2018. 09. 16. 일

중간발표 ppt 만들고 3빠로 올렸다! 세미나에서 사용했던 ppt를 다듬고 정호쌤께서 추가하라고 하신 거 추가했다. 수필 항목은 당연히 다 지웠고.. 아,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금요일에 형주님께 연락드려서 인터뷰 질문을 빨리 받고자 했었는데, 사정이 있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주말을 넘기고 연락 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제 형주님 이메일 인터뷰 답장이 와 있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이제 대본을 짜야겠다.

2018. 09. 17. 월

오늘 대본을 좀 짰다.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떨리지만 막상 내일 발표할 때 떨릴까봐 준비하려고 했다. 예상질문도 몇가지 짰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는거니까!!

2018. 09. 18. 화

오늘은 중간발표를 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사실 발표하러 나갔을 때 많이 떨렸다. 음.. 질문 받을까봐 무서웠는데 아무도 질문해주지 않아서 내가 덧붙여서 포크에 대한 설명을 했고, 곡을 10초 들려드렸다. ㅋㅋ 병곤쌤께서 조언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부른 노래가 약간 팝과 결합된 포크인 것 같다고, 포크송의 특성을 살린 곡을 한 곡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것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셨다. 할 말이 많아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싶다.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방음이 너무 안되서 암실에 가서 녹음을 했다. 첫 번째 곡 기타트랙 반절까지는 어떻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2018. 09. 19. 수

오늘은 한결오빠한테 큐베이스를 배웠다. 사실 그저께 한울오빠한테 녹음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었는데 요즘 많이 바쁘다고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어제 한결 오빠한테 부탁했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ㅠㅠ 오늘도 너무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다.. 노이즈 제거, EQ, 리버브, 딜레이, 녹음 꿀팁, 음정 조절 등등 정말 많은 걸 알려줬다. 자세한 건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았는데 헛갈릴 때 마다 꺼내봐야겠다. 너무 정성껏 알려줘서 감동했다.. 정말 멋진 선배님인 것 같다. 3, 4교시에 한결오빠가 알려준 큐베이스 사용법을 좀 익혔다. 통기타 녹음도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게인 값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도 해보고, 사운드를 익히는 하루를 보냈다.

아, 악보 기보를 시작하기 위해 '뮤즈스코어'라는 악보 기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다. 무료인데 쓸 만 한 것 같다!

2018. 09. 20. 목

오늘은 아침 일찍 7시에 학교에 왔다.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은 하루였기에 논문 쓸 시간을 확보하러 온거 였는데, 화요일부터 진행하던 곡의 기타 트랙 전체와 솔로를 넣었

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고,, 하루가 바빠 지나갔는데.. 음식작업장 진짜 헬이다.. 어쨌든 장비는 과학실에 다 셋팅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폭력 서약식 공연 부탁은 한참 전부터 받았었는데, 원래 사월님 곡으로 공연하려다가 내 곡을 들려주었다. 아, 그리고 들려준 곡의 제목을 정했다. 최종 곡 이름은 '마음 냄새'이다.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나?)아서 기뻐다. 라이브 연습 겸 반응 들어볼 겸 한 거였는데, 라이브 연습.. 진짜 심각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악보를 그리기 시작한 '마음냄새'를 한 12마디 정도 기보 한 것 같다. 너무 어렵다.. 속도가 조금 붙었으면 좋겠다.. 수자쌤과 깡지쌤께서 밥딜런 전기 영화인 'I'm Not There'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하셨다. 가정학습 가자마자 봐야겠다.

2018. 09. 21. 금

오늘 집에 왔다. 사실 안 보내줬으면 나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나 진짜 힘들다. 대기시간까지 7시간 반 타고 온 버스와 택시.. 아 진짜 죽을 것 같다ㅠㅠ 하지만 나는 지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먹고, 깡지쌤이 추천해주신 영화 '아임 낫 데어' 다운 받아서 바로 거실에서 봤다.

“아임 낫 데어(2007)을 보고...”

사실 너무 어려웠다. 전혀 다른 7명의 사람이 나와 밥 딜런을 이야기한다는 데서부터 나의 뇌에 과부하가 걸렸다. 대충 밥 딜런 책과 여러 학위 논문들을 보면서 포크와 밥 딜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참 다행스러웠다. 공부 안하고 봤으면 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하자면 잤을 것 같다.

이 영화를 보며 느낀 점은 포크의 역사의 흐름을 조금 더 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익숙한 이름인 밥 딜런의 우상, 우디 거스리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 것 같다. 되게 다양한 정서와 바뀌는 장면 장면들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이해하기에는 버거웠던 것 같지만, 밥 딜런이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밥 딜런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다.

밥 딜런이 포크에서 포크 락으로 전향하면서 일어났던 일들과 대중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다른 자료들을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그의 한 부분을 쥘드 퀴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었다. 대중이 규정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탈피하고자 했던 딜런의 모습이 겹쳐보였었다.

정말 영화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심오한 작품들을 좋아하는 하는 편이긴 하지만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다. 음... 아주 조금은 이해한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앓! 하고 깨달을 만 한 장면은 없었지만, 대사가 너무 좋았고, 60년 대 포크의 흐름과 밥 딜런을 이해하는데 있어 조금의 도움은 된 것 같다.

사실 논문이 끝나고 나서 두고두고 보고 싶다. 그 시대를 조금 더 공부하고,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

2018. 09. 22. 토

가정학습 1일 차

흐어.. 가정학습.. 일어나자마자 동생 방에 장비 가지고 가서 두 번째 곡 녹음 시작했다. 일단 모든 곡 통기타 녹음 다 한 후에 보컬 입힐 생각인데,, 집에 있는 새컨드 통기타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마음에 안든다.. 기타 일부러 학교에서 안 가져왔는데ㅠㅠ 어쩔 수 없지만 하

다가 계속 거슬러서 그저께 하던 악보 기보하기 시작했고, 하루종일 하다가 결국 한 곡의 악보를 완성해냈다!!!! 정말,, 악보 잘 볼 줄도 모르고 그릴 줄은 더더욱 모르고,, 음표가 뭐고 쉼표가 뭔지 잘 분별도 안되는 상태라 어찌되었든 한 곡의 악보를 완성한 내가 너무 장하고 기특하다. 속도 내보즈아!!!!

2018. 09. 23. 일

좋다좋다. 오늘은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던 어제보다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 듯하다. 반나절에 걸쳐,, 내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곡의 악보를 완성했다. 빨리 곡 제목을 정해야 할텐데..

2018. 09. 24. 월

좋아씨좋아씨~~ 오늘은 6시에 일어나서 '타임캡슐'의 악보를 그리기 시작하다가.. 한 6마디 만들었나?? 다시 퍼질러 잤다..ㅋㅋㅋㅋ 1시쯤 일어나서 쉬엄쉬엄 세 번째 악보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음.. 온가족 산책도 나가고 영화도 보고 동생이랑 마트도 다녀오고 밥도 차리고, 먹고 한 일들의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모두 악보에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계속 속도가 붙는다. 내일은 마지막 악보 마무리 후에 엄청 빠르게 녹음하고, 본문은 모레부터 쓰는 걸로 해야겠다. 사실 계획했던 거랑 아주 짝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렴 뭐 어쩐가.. 이번 주 금요일,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버리리라 다짐한다.. 다짐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가을축제를 위한 설문지 작성해보려 한다. 쉬는 시간마다 본문에 들어갈 작품 설명 조금씩 쓰기 시작해야겠다.

2018. 09. 25. 화

예에 결국 '타임캡슐' 악보를 완성했다. 내일은 '보고싶어' 악보를 기보하기 시작해야겠다.

2018. 09. 27. 목

어제 오늘은 외삼촌이 집에 놀러 오셔서 아무것도 못했다.. 사실 새벽에 세 번째로 기보하기 시작한 곡 '보고싶어'를 반 정도 그리고, 저녁 먹기 전부터 저녁 먹고 나서까지 열심히 그려서 결국 다 완성했다. 흐어 힘들다..

2018. 09. 28. 금

오늘은 마지막 악보를 그렸다!!!! 낯선 세상을 그렸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었다. 내일까지 해야겠다.. 아, 오늘 곡 이름을 다 정했다. 의도치 않았는데 네글자로 다 통일이 되어서 신기했다 ㅋㅋ

2018. 09. 29. 토

마지막 곡 낯선 세상 악보를 완성했다!! 예에~~~~~ 계획했던 것들,, 이를테면 평가 설문지 만들기와 곡 녹음하기.. 평가설문지는 건들지도 못했다.. 곡 녹음은 기타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접었고,, 정말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한거라고는 악보 만들기인데, 이거라도 열심히 했으니 됐다. 지나간 일 후회할 시간에 못한 걸 해야하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뭐가 안된다. 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해야지.

2018. 10. 1. 월

결국 가정학습이 다 끝나고,, 계획했던 일을 다 실행하지는 못했다. 어제 학교에 와서 녹음을 하려고 소강당까지 가서는.. 논문은 안 쓰고 내내 피아노만 치고 있었다.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이제 엄청난 압박감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가을축제가 점점 다가온다ㅠㅠ 울고 싶다.. 정말 어제처럼만 안 그러면 잘 할 수 있을텐데ㅜㅜ 어쩔 수 없다. 오늘은 풀강인데다 간식 납품 날이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신문까지... 아.... 진정 헬이다.. 스케줄 파탄났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와서 곡 설명을 쓰긴 했다. 밤에 하면 다음날 일정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취침패턴을 좀 바꿔보려 한다. 앞으로 계속 5시에 일어나서 해야겠다. 언제까지 갈까 과연...

아, 성민이가 내 마이크 고장 내서,, 녹음은 물 건너갔다. 일단은 열심히 라이브 연습이나 해야겠다. ㅠㅠ 정말 어찌지 나.. 답이 없다.

2018. 10. 02. 화

오늘도 일찍 왔다. 7시에 학교에 왔다. 와서 계속 곡 설명을 썼다. 어제 오늘 바짝 써서 두 곡 정도 썼다. 음주 책임수행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느라 진을 다 뺐다. 논문을 도저히 쓸 시간이 나지 않았다. 가정학습 전에 해야야 하는 건데.. 밀리고 밀려 다급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논문을 하지는 못했다.

기숙사에 올라가 대자보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나면 논문 곡 설명 정말 쓰고 싶었는데,, 대자보 하느라 아침이 와버렸다. 잠 와 죽을 것 같다.

2018. 10. 03. 수

난 정말 시간과 나를 다룰 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하루 못 잤다고 기진맥진한 나를 보면서 참 한심했다. 1, 2교시를 아주그냥 폭 잤다 ㅋㅋ 점심부터 3교시 짝 채워서 여축하고 4교시에 음주 대자보 마무리하고 저녁 먹기 전에 붙였다. 드디어 끝냈다. 어제 기숙사 올라가서 애들이랑 토론하고 이야기한 보람이 있다. 이제 논문 해야지!!

2018. 10. 04. 목

논문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난 문찬위였다ㅋㅋㅋㅋㅋㅋ 문찬위를 했다.. 오늘의 유일한 공강인 2교시를 문찬위에 들이부었다. 하하.. 이제 작품 준비 해야하는데.. 망했다.. 곡 평가 설문지는커녕 아직 애매하게 완성된 '타임캡슐'의 브릿지 부분을 다듬어야 했는데, 다듬고 나니까 목학이 끝나 있었다.. 어쩔 수 없다. 이정도로 만족하고 내일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2018. 10. 05. 금

3학년이 다 같은 자리에 모여 작품발표 리허설(?) 전시구상(?)을 했다. 도서관의 짐을 빼고 책상을 날라서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주에 썼던 곡의 설명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요약해서 프린트하고, 코팅하고, 자르고, 악보집을 만들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다.. 이렇게 가면 과연 내가 내일 작품발표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게 끝냈다. 친구들과 모여서 논문을 쓰니까 감회도 느낌도 굉장히 새로웠다. 역시 닥치면 미친 듯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내일 있을 내 작품의 최종 발표(?), 공연을 위한 리허설을 했다. 마이크 앰프와 기타 앰프를 세팅하고 카페에서 11시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셋팅은 그런대로 잘 되었는데 내 라이브 듣고



내가 놀랐다.. 앞이 깜깜했다. 과연 내가 내일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마웠던 게 한결오빠가 정말 친절하게 어떤 앰프를 쓰면 되는지 설명해줬다. 정말 항상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날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호쌤도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내일 파이팅!!

2018. 10. 06. 토

- 논문작품발표 (D-day)

오늘은 논문 작품 발표에 성공했다.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드는 하루였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오늘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이 심란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렸던 것 같다. 작품 전시에 내 논문과 작품 전체 설명을 짓지 못하고 발표준비를 하지 못해 마음이 급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술술은 아니어도 잘 풀렸던 것 같다.

작품 발표를 하면서 울컥했는데, 아직도 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단단해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망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렇게 쉽게 눈시울이 붉어지다니.. 상상도 못했다. 내 '낮선세상'을 라이브로 부르다가, '모든 건 다시 제자리 그대로 돌아올거야' 하는 부분에서 문득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같았다. 노래란 참 대단한 것 같다. 부르는, 그리고 듣는 사람들까지도 위로받고 위로해줄 수가 있다니. 오늘도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했다.

저녁 먹기 전에 라이브를 할 때 급히 평가지 프린트 하느라 멘트를 제대로 짜지 못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월님..!!! 사월님의 공연 속 멘트가 너무 도움이 되었다!!!! 정말 갓샤리... 공연 두 번 다녀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 사월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역시 거기까지의 멘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잘해내서 다행이다. 그런데,, 노래.. 너무 아쉽다. 노래보다 멘트를 더 잘 친 것 같다ㅋㅋㅋㅋㅋ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떨리고 어색해서 무대에서 엄청 실수하고 틀렸다. 연습한 만큼 나오지 않아 슬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공연을 마친 다음, 어진오빠가 중간중간 멘트가 너무 좋았다고 말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내 이야기를 담은 곡을, 내 진심을 드러낸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잘했고 수고했다는 여러 조언들을 들었다. 끝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내 진심이 전해졌다는 말, 내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정말 행복했던 것 같다. 내 진심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사람들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 각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 내 논문의 목적을 넘어서 내 목표와 바람을 이뤄낸 것 같아서 너무 벅차고 행복했다. 웃음이 막 난다.

주현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2018. 10. 07. 일

오늘은 누리마을 빵카페에 가서 초코버블티를 마시며 어제 돌렸던 감상평 설문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아직도 막 어제 공연이 아쉽다... 정말...

2018. 10. 08. 월

풀강이다. 헬이다. 월요일 헬이다. 월요일 짱싫다. 월요일 풀강이라., 내가 이때까지 조금씩 써놓은 곡 설명 정도를 본문에 붙이는 작업까지밖에 하지 못했다.. 정말 끔찍하다.. 월목 신문 회의~~~~~

2018. 10. 09. 화

오늘은 포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했다. 내가 완벽한 이해와 공부라 되어야만 본문에 실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모아두었던 학위논문들과 자료도 다시 한 번 읽고 정리해보고, 도서관 서가를 뒤지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계획서 발표를 하고난 후에 포크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었는데 관련된 책이 한 권도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훑어보니 '포크'만을 다루는 책이 없었던 것뿐이지, 한국 음악사의 흐름을 담은 책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과 위치로 자리하고 있었다.

「전복과 반전의 순간 - 강현이 주목한 음악사의 역사적 장면들」에서 포크의 특징과 한국 포크의 역사를 사회적 배경과 인물에 맞추어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포크를 넘나들며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었다. 당시 포크 아티스트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가 있다. 음악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었다. 정말 이런 책이 있는 줄 몰랐다.. 포크를 청년문화와 음악의 장르로 나누는 학위 논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책만큼 간단하고 쉽게 정리한 책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좋은 책을 만났다. 이 논문이 끝나면 차근차근 시리즈별로 다 읽고 싶다.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포크가 어떻게 청년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었고, 어떻게 대중화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포크라는 장르의 특성의 '공동체적 성격'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크게 공감하고 흥미로워하며 읽었다. 좋은 통찰력을 가진 책인 것 같다. 하지만 포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부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아쉽긴 했다. 또한, 지금 현재 포크의 방향성과 특징을 잘 이야기 해주고 있다. 60년대~90년대의 포크와 지금의 포크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법으로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짧지만 굵게 쓰여져 있다. 시대를 지나오면서 변화한 포크음악은 악기의 구성보다는, 그 안의 정서와 메시지가 주가 되고 있기에 '델리스파이스', '윤도현 밴드' 등의 밴드들 또한 포크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에서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해낸 것 같다.

이 책들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시간이 나면 다 정독하고 싶다. 조금이나마 '포크'라는 장르에 대한 역사와 특성을 알게 될 수 있었다.

2018. 10. 10. 수

오늘은 선호썸을 찾아가 음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읽은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첫째로 포크음악에서 말하는(쓰이는) '로맨티시즘(romanticism, 낭만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고(19세기 음악을 이야기 하는 걸까? 하는 의문(각 장르마다, 분야마다 쓰이는 뜻이 달라 혼란스러웠다.)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크리티시즘(criticism, 비판, 비난, 비평= 즉, 사회 비판, 저항적 음악)'에 대한 의문이었다. 왜 두 계열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클래식와 낭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셨다. 클래식의 역사에서 '낭만주의'는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의 형식과 양식이 굳어지게 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다루고자 하는 베토벤을 필두로 고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한다.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낭만, 인간의 본성과 감성, 감정에 충실한 음악을 하고자 하는 계열을 '낭만주의'라고 부른다고 하셨다. 현재 포크의 개념에서는 굳이 '프로테스트 포크(크리티시즘, 사회 비판적 음악)'와 '낭만주의'의 계열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그 시대에 낭만주의적 포크와 프로테스트 계열의 포크의 계열이 나뉘고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다.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번안곡이 한국의 포크 음악의 시초가 되어 시작될 무렵, 1970년대 이후에는 유신 군사 정권에 대한 시위가 불어지면서는 아직 초기적인 단계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1980년 대, 박정희 정권이 막이 내리고 전두환 군사정권에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들만의 투쟁가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프로테스트 포크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에 음악으로 투쟁하고 싸웠던 프로테스트 포크 아티스트들은 자연과 사랑, 감정과 본성에 충실한 낭만주의 아티스트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한다.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음악도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짱짱 신기했다. 계속 책을 읽고 공책에 정리하는 중인데, 완전 재밌고 흥미롭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인터뷰 발표 들으러 갔다.

또, 수자쌤과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본문의 목차와 연구방법 등의 틀을 수정하고, 덧 붙이는 것에 대한 조언과 이야기를 들었다.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다. 열심히 하고 싶다!! 논문 수업 빨리 듣고 싶다.. 한글 프로그램 다루는 법 아직 내겐 너무 어렵다..

2018. 10. 11. 목

학급활동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포크의 정의 계속 수정했다. 점심시간에도 이어서 짬뽕 밀렸던 일지를 쓰고, 계속 하던 작업을 했다.

목학에는 신문 숙제하고,, 책 읽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갔다. 포크의 정의 쉽게 풀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만 하루 종일 붙들었는데도 별 성과가 없다ㅠㅠ 사월님께 전문가 평가 부탁을 드리기 위한 질문을 짜보았다. 적어도 내일은 보내야지.

2018. 10. 12. 금

오늘은 논문 수업을 들었다. 누구랑 이야기 한다고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가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열심히 듣고 해서 양식 다 따오고, 오늘은 그 양식에 내가 지금까지 썼던 본문을 붙여 넣는 작업을 했다. 또 전문가 평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라이브 영상을 편집했다. 지금 당장 음원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누누이 말했듯이 나는 논문 끝나면 다른 세션까지 추가하거나 해서 음원을 만들 생각이다.

영상 편집과 최종 악보 수정, 수정된 네 곡 가사도 파일 열어서 수정하는 작업을 끝냈다. 메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이파이 끊겼다.. 피같은 데이터로 핫스팟 켜는데,,, 풀더는 메일로 안보내진대서 네곡 각각 압축하는 작업까지 했다. 내일 꼭 보내야지.

2018. 10. 13 토



## 2. 이형주님과 인터뷰

### 1. 자기소개와 하고 계신 일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블루스 음악을 하고 있는 이형주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있습니다.

### 2.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 또는 노래를 하려고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정말 사소한 계기였어요. 기타를 치는데 아는 코드는 몇 개 없고 대중가요도 잘 몰라서 내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처음 작곡을 시작했어요. 작곡한 노래가 제법 짧고 나니 내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나중에 학교 축제에서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친구들과 자작곡으로 밴드를 하면서 다른 악기들과 소통하고 새롭게 편곡해보는 재미를 알게 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 3. 하고 계신 노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장르 또는 노래가 담는 메시지를 등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어쿠스틱 블루스 음악을 하고 있고요. 장르가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고 그냥 블루스 진행을 기반으로 한 여러 곡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 현장에서 함께하다보니 노래에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직시한 나의 문제도 함께 연관 시켜 노래를 만드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나의 주장만 담겨 있는 노래보다는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노래를 쓰고 싶어요. 어찌 보면 사랑 노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 같은 그런거 ....? 저도 어찌되었든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사회적, 시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4. 형주님께서 하시는 민중음악이 형주님의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으신가요?

: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개인의 이야기도 사회적 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민중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과 여러 사회문제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연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억압받고 차별 받은 사람들은 저의 가까운 이웃이고 또 저 자신이기도 해요. 어느 누구의 삶도 사실 민중음악과 매우 가까운 것 같아요. 해고 노동자는 누구나 될 수 있고, 당장 우리 집에 재개발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억압받고 차별받은 사람을 위한 노래는 지금 당장 제 노래이기도 해요.

### 5. 직접 작곡, 작사를 하시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주님의 삶과 일상, 생각들을 노래에 어떻게 녹여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삶은 게을러요. 일하기도 싫어하고 최근에는 공부도 안하네요. 너무 늦게 보내드린 것도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제 게으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각설하고 질문에 답하자면 저는 제 마음의 상태 감정의 흘러감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상과 짧게 지나가는 사건들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 노래에서 제 삶이 나오는 것 같아요. 꾸준히 노래를 만들다보니 어느 순간 그 안에 제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 6. 작사, 혹은 작곡에 있어 중요하게,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 흠.....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면 제 스스로 새로워지지 못할 것 같아요.

7. 민중음악을 떠올리면 주로 1970년대 ~ 2000년대 전후에 시위에서 사용하고, 불려지던 꽃다지의 '불나비'나 '희망은 있다' 등의 음악이 먼저 떠오릅니다. 2000년대 이후, 최근의 민중음악들은 과거의 민중음악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최근의 민중음악들을 잘 몰라서요 ( 죄송합니다ㅠㅠ 제가 못한 사람이라 ....)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옛날의 민중음악이 행진하고 팔뚝질 하기 좋은 박자와 리듬으로 만들어진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든 시위용 노래였다면 최근은 서정적이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서사도 좀 더 다양해지고요.

8. 형주님은 포크와 블루스 장르의 음악을 주로 만드시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와 블루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사실 그 둘이 너무 친한 친구라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블루스는 1-4-5도 진행으로 부르는 돌림 노래의 성격이 강한 장르라면 포크는 좀 더 가사에 집중된 장르가 아닐까 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블루스는 흑인들이 노동요로 부르던 노래라면 포크는 백인들의 민속음악에서 시작된 걸로 알아요. (아닐지도 몰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요 ...ㅠ) 블루스는 삶의 애환이나 슬픔, 고됨을 노래한다면 포크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 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수단들 인 것 같아요.

9. 최근에 sns를 통해 계속 궁중족발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활동가로서, 궁중족발은 어떤 곳이며 왜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궁중족발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정한 기한을 넘기 가게였어요. 5년이라는 기한을 넘겨버린 상가는 법적으로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권리금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워져요. 또 건물주가 자리를 비워 달라고 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해요. 궁중족발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저항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어요. 자영업자에게 가게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이 가꿔왔던 거리의 상권과 공동체가 전부 건물주의 시세차익으로만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해요.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적인 집행구조 역시 사라져야하고요.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첨부 할께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5797&ref=kko>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817250393631>

10. 성주 소성리의 사드, 궁중족발 등 사회의 부조리와 아픔이 있는 곳에 많이 다니시면서 공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신 곳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 다들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그중 가장 함께 많은 시간 함께 싸웠던 궁중족발이 가장 최근이니 기억이 선명하네요. 함께 같이 투쟁하던 친구들도 기억에 남고, 그 공간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나요. 다른 현장들은 연대공연으로 많이 갔지만 궁중족발에서는 함께 점거하며 한 6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국가의 잘못된 구조가 어떻게 개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지도 가까이서 피부로 느낀 것 같아요.

11. 형주님께서 싱어송라이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제 노래가 너무 마음에 안들 때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요즘 어떤 곡을 만들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지속되니까 의지도 점점 줄어가고 .... 사실 노래는 자기 잘난 맛에 불러야 한데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12. 반대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 제 노래를 들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요 모든 음악가들이 그렇듯이 또 저 보다 뛰어난고 멋진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 하는 일도 행복했어요. 다른 음악가들과 같이 작업하는 일도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어요.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13. 마지막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논문으로 저의 삶을 담은 포크곡을 쓰게 되었는데요. 노래를 쓰고, 부를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음악, 영화 등을 추천 받고 싶습니다! 외에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음반

윤영배 - 위험한 세계

bert jansch - jack orion

bon lver - for emma forever ago

예람 - 새벽향해

bob dylan - the freewheelin' bob dylan

carole king - tapestry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бππ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음악하시고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응원합니다!!